

정책연구  
2025-06

#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II)

- 북한이탈주민 -

조혁진 · 이승렬 · 이지연



정책연구  
2025-06

#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II)

- 북한이탈주민 -

조혁진 · 이승렬 · 이지연



# 목 차

요약 .....	i
제1장 서론 .....	(조혁진) ..... 1
제1절 들어가며 .....	1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5
제4절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관련 제도 현황 .....	(조혁진) ..... 8
제1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체계 .....	8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성 .....	11
1.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 .....	12
2.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	14
제3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단계 .....	14
1. 1단계 : 진로설계 및 취업상담 단계 .....	15
2. 2단계 : 취업준비 단계 .....	15
3. 3단계 : 취업알선 단계 .....	16
4. 4단계 : 사후관리 단계 .....	18
제4절 소 결 .....	19

제3장 통계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의 현실	
..... (이승렬) .....	21
제1절 서론 .....	21
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란? .....	21
2. 응답자 분포 .....	2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	27
1. 경제활동참가율 .....	27
2. 고용률 .....	30
3. 실업률 .....	31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32
5. 취업자의 업종과 직업 .....	34
제3절 임금근로자의 근로 실태 .....	35
1. 임금근로자의 구직 .....	35
2. 근속기간 .....	39
3. 평균 임금 수준 .....	40
4. 사회보험 가입 .....	42
제4절 비경제활동인구 .....	44
제5절 요약과 결론 .....	46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경험	
..... (조혁진 · 이지연) .....	48
제1절 서론 .....	48
제2절 임금근로자 .....	49
1. 취업 준비하기 과정 .....	49
2.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	54
3. 일터에서의 관계 맺기 .....	58
4. 직무 만족도와 근속 .....	60
5. 직업생활의 대표적 어려움 : 언어 문제 .....	62

6. 일의 의미 .....	64
제3절 자영업자 .....	67
1. 창업의 동기와 준비 .....	68
2. 가게 운영의 구체적 사례와 어려움 .....	70
3. 창업 과정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 .....	72
제4절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진로와 일 경험 .....	73
1. 대학 생활과 진로 (1): 교육 자본 혜택의 명암과 현실적 갈등 요소 .....	74
2. 대학 생활과 진로 (2):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 가치관에 대한 고민 .....	78
3. 취업준비: 스펙과 구직활동, 전문직을 위한 대학원 진학 .....	80
4. 일 경험: 인턴과 직장 생활 .....	85
제5절 소 결 .....	89

##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동생애사적 접근과 분석

..... (이지연) .....	92
제1절 들어가며 .....	92
제2절 노동생애사 연구 방법 .....	93
1. 구술생애사 연구 .....	93
2. 노동생애사 연구 .....	95
3. 북한이탈주민 생애사 기존 연구 검토 .....	97
4.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생애사적 접근과 해석 .....	99
제3절 사회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의 가치 : 경제와 생존, 그리고 인정 투쟁 .....	101
1. 일하기와 ‘돈’ 벌기: 북한에서 돈 벌기와 남한에서 돈 벌기, 그리고 살아남기/살아가기 .....	101
2. ‘직장 생활’과 직위 갖기: 남한에 잘 적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승인 .....	107

제4절 젠더화된 이동성과 노동 :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중첩, 분리, 양립 .....	117
1.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돌봄을 위한 사회자본 획득의 어려움 .....	117
2. 복수의 가족들 사이에서 생산-재노동의 복합 : 생계부양과 돌봄, 송금 .....	123
제5절 '배우기'와 '일하기' : 기술과 역량, 정체성과 자기의 재구성 .....	129
1. '자격증'의 복합적 의미 : 도구적인 것과 자기 증명을 위한 것 .....	129
2. '일할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 경쟁 사회 속 학력, 스펙, 기술과 사회생활 .....	133
제6절 소 결 .....	138
 제6장 결 론 .....	(조혁진) 142
제1절 연구의 요약 .....	142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고용서비스 내실화 추진 방안 .....	143
제3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144
 참고문헌 .....	146

## 표 목 차

〈표 1- 1〉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	3
〈표 1- 2〉 연구참여자 정보 .....	6
〈표 2- 1〉 제6기 하나센터 지정현황(2025년 기준) .....	9
〈표 2- 2〉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2025년 10월 말 기준) .....	11
〈표 3- 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조사항목 .....	22
〈표 3- 2〉 응답자 특성 추이(2017~2018) .....	26
〈표 3- 3〉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	29
〈표 3- 4〉 거주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	29
〈표 3- 5〉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	30
〈표 3- 6〉 취업자 업종별 분포(2024) .....	34
〈표 3- 7〉 취업자 직업별 분포(2024) .....	35
〈표 3- 8〉 종사상지위별 평균 구직기간(2017~2024) .....	39
〈표 3- 9〉 남북통합학력 평균 임금수준(2022~2024) .....	42
〈표 3-10〉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 여부(2024) .....	43
〈표 3-11〉 건강보험 가입 여부(2024) .....	43
〈표 3-12〉 활동상태별/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비율(2024) .....	45

## 그림목차

[그림 3- 1]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7~2024) .....	27
[그림 3-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	28
[그림 3- 3] 고용률 비교(2017~2024) .....	30
[그림 3- 4] 실업률 비교(2017~2024) .....	31
[그림 3- 5] 성별 실업률 추이(2017~2024) .....	32
[그림 3- 6] 비임금근로자비율 추이(2017~2024) .....	33
[그림 3- 7] 사업시작 동기(2017) .....	33
[그림 3- 8]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	36
[그림 3- 9] 남한겨주기간별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	37
[그림 3-10]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	38
[그림 3-11] 평균 구직기간(2017~2024) .....	39
[그림 3-12] 평균 근속기간(2017~2024) .....	40
[그림 3-13] 평균 임금수준(2017~2024) .....	41
[그림 3-14] 연령대별 평균 임금수준(2017~2024) .....	41
[그림 3-15]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수준(2024) .....	42
[그림 3-16] 고용보험 가입비율(2024) .....	44
[그림 3-17] 성별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추이(2017~2024) .....	45

##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노동 문제를 다룬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곤궁에 따른 ‘난민’, 그리고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민’이라는 복합적 양태를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시장의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과 노동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2023년 말 기준, 약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직종, 취업 형태, 작업장에서의 경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기 전의 일 경험, 그리고 남한에 온 이후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취업 시도, 취업 이후의 다양한 노동경험에 대한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는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3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최전선 기관의 특징을 갖는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를 위한 제도는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 자산형성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과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단계는 진로설계 및 취업상담 단계에서 시작해서, 취업준비 과정 지원, 취업알선, 취업 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집계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2017~2024년 8년간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6할을 넘어서는 주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으며, 장기 체류로 이행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아직 고졸 이하가 67.6%로 절대다수라는 점은 이들의 노동시장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기도 하다.

2017~2024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63~65% 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컸으나 회복도 빨랐음을 통계는 확인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과 함께 2020년 이후로 줄어든 실업률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8%p 증가한 결과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이 주요한 정책 대상이라는 사실도 통계에서 입증된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업종으로는 남성은 건설업과 제조업,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남녀 모두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임금근로자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2024년 현재 평균 임금 수준은 26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53.2만 원, 여성은 221.5만 원으로 남녀 간 차이가 131.7만 원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큰 편이다. 임금 분포에서 한 가지 특징은 연령대별로 볼 때,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2022년 이후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24년의 경우에 심신장애(건강 문제)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50대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집계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본 경제활동의 특성이라 심도가 있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장기 체류 상황으로 진전되면서 점차 남한 노동시장에 정착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가 늘고 있음에도 실업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이 여전히 노동시장 참가와 취업 활동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에서 탈주민의 고령화도 사회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정책과제라 하겠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경험을 현재 노동시장 지위 및 세대에 따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청년세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언제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선택이 광범위하게 고려되지만, 입남을 한 시기의 연령과 가족 상황,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취업하는 경로와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었다. 하나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주변 지인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취업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터에서는 자신의 업무 능력보다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 북한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외래어가 많은 현실에서 적응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동료관계 및 고객관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경우 '다름에 익숙해지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일터에서 남한출신 동료들이 북한출신 동료들을 자주 접하지 못한 경우 상호 이해의 정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향후 앞으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은 영역의 일터로 진

입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전의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모은 돈과 주위의 도움을 얻어 자본을 마련하여 창업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데에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수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큰 동기였다. 그러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며, 이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남한 출신 지인들이 중심인데, 그럴 경우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가령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혜택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이 없을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웠기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창업자금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 후 가게 운영과 관련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남한 청년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금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위치,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 진학 시 북한이탈주민 특별 전형은 교육 자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할수록 학점, 영어, 스펙, 사회자본 등을 관리하는 데 남한 학생들과의 차이를 다시금 실감하게도 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구직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대학원 진학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대학원을 고민하는 매우 실질적 목적으로 MBA, 로스쿨과 같은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에 아직 많지 않지만 고학력 전문직을

지향하고 성취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인턴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인턴 경험은 실력을 높인다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인턴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선발하여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보다 사회자본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인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이 북한, 제3국, 남한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일’이라는 것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노동이란 북한과 제3국, 남한에서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공사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층적인 경험을 통해 복합적인 의미들을 구성하였다. 이 복합적인 의미란 생계, 친밀성, 사회적 인정 등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서 이는 젠더, 세대, 제3국 거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의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하기’인 것이고 이는 ‘돈 벌기’의 행위로서 경제적 주체로 생존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기와 돈 벌기의 방식 및 그 가치는 북한에서의 장마당과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기에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노동시장에서는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했다는 증표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남한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역량은 단순히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북한에서부터 중국,

남한에 와서까지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다.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남한 여성들처럼 경력단절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돌봄의 사회자본 획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보편적 돌봄 지원 시스템에 더하여 특별히 지역 단위에서 돌봄 연결망을 활용한 상호 돌봄 커뮤니티 구축, 돌봄 교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오자마자 하나원에서부터 취업을 위해 적성 찾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며, 이는 향후 직업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노동자가 되는 과정으로 경험된다. 그런데 '자격증'을 활용해서 취직할 수 있지만, 취업 및 조직 생활에서 자격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남한에 왔을 때 이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함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취직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자신의 숙련도나 인간관계 역량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직면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혜택이 양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남한 출신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력이나 사회자본 부족을 남한 출신 청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하는 점도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독려하여 이들을 위한 인턴십 제도나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자산형성제도의 일환인 미래

행복통장의 확대 개편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른바 '선주민'의 인식과 담론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인식과 담론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익숙해지기'와 '준비하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다양성-다문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제1장 서론

## 제1절 들어가며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ies)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평등권이나 사회적 기회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일할 권리 또는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평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일’과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고용과 노동의 문제에서의 차별 지점을 밝혀내고,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I): 성소수자』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로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일자리 구하기에서의 문제, 그리고 일터에서 경험하는 차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성소수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의 두 번째 연구기획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난민’의 성격을 가진 ‘이주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 외국 출신 ‘이주민’ 또는 ‘난민’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이주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 유입과 이주민 확대와 관련된 정책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남한 입국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입남 인원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3년과 2011년 사이 연간 입남 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약 1,3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남한으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총 34,078명이며 이 중 남성이 9,542명(28%), 여성이 24,536명(72%)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온 경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과 재활 의지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편입을 목표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훈련, 연수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63.4%, 고용률은 60.5%, 실업률은 4.5%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3%,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2.7%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고, 실업률은 더 높은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은 일반 국민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지만,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한 자원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을 1순위로 꼽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의 2023년도 결과에 따르면,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 1순위로 남성과 여성 모두 취·창업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자는 남성들이 더 많으며, 20대에서 40대 연령대는 모두 취업과 창업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

〈표 1-1〉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취·창업 지원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	의료지원 (병원비, 치료비 지원)	교육지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 관련 등)	소득 지원 (장려금, 생활비 보조 등)	주택문제 (배정된 주택 상태, 동네 등) 관련 지원	법률지원 (가족관계, 형사사건 등)
2023년		21.7	18.1	14.3	12.7	10.9	6.0
2022년		21.9	18.7	13.2	12.1	13.3	5.7
성 별	남성	26.2	14.5	12.6	10.9	12.6	7.3
	여성	20.3	19.3	14.8	13.3	10.3	5.5
연 령	15~19세	15.1	9.1	44.0	14.7	7.3	3.3
	20대	27.2	8.5	18.9	16.4	15.9	2.3
	30대	26.0	11.0	16.9	9.5	13.4	6.5
	40대	24.0	16.0	16.9	10.3	10.7	6.3
	50대	17.6	27.2	10.4	10.2	9.1	7.5
	60대 이상	14.5	25.5	4.0	25.5	7.2	4.1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03.

한다면,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과 노동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직종, 취업 형태, 작업장에서의 경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경험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서 출생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경제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 이들의 적응 과정,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시민권과 민주주의, 다양성과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7년간 한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고용 및 취업지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에서의 경험, 제3국에서의 경험,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노동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과 취업 정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은 임금, 숙련도, 노동시간, 근속기간, 작업장 문화 적응, 동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등에 따라 노동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점과 그 사례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노동 경험에 관한 심층 연구는 남한 생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같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는 작업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고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 과정과 노동 경험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차이와 차별, 효능감과 만족도, 자기 정체성의 형성과 통합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과정을 고용-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주민 개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직업 생활'을, 이주민이 속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첫째,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체계와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취업지원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노동 등 경제활동 실태를 통계로써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의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생활의 쟁점을 파악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노동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경로와 구직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업하고 난 이후 일터에서의 각종 경험을 분석한다. 이른바 '전환'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터에서의 직무 맡기와 동료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어떻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적응'의 과정은 사회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생애사를 분석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남한으로 오기 전 북한 및 제3국에서의 노동 경험이 남한으로 온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애 속에서 노동의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 제4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상담사 및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연구과정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참여자의 개략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2〉 연구참여자 정보

연번	코드	분류	성별	현재 연령	입남 시기	입남 과정
1	A01/C01	하나센터상담사/임금근로자	여	50대	2011	경유
2	A02	하나센터상담사	여	-	-	-
3	A03/C02	하나센터상담사/임금근로자	여	50대	2011	직행
4	A04	하나센터상담사	여	-	-	-
5	A05	하나센터상담사	여	-	-	-
6	A06	하나센터상담사	여	-	-	-
7	B01/C03	사업주인사담당자/임금근로자	여	40대	2017	경유
8	B02	사업주인사담당자	여	-	-	-
9	C04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5	직행
10	C05	임금근로자	여	40대	2010	직행
11	C06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6	경유
12	C07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4	경유
13	C08	임금근로자	남	50대	2024	경유
14	C09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0	경유

〈표 1-2〉의 계속

연번	코드	분류	성별	현재 연령	입남 시기	입남 과정
15	C10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8	경유
16	C11	임금근로자	여	50대	2017	직행
17	D01	자영업자	여	50대	2017	경유
18	D02	자영업자	여	40대	2015	경유
19	E01	임금근로자	남	30대	2005	직행
20	E02	임금근로자	남	30대	2006	직행
21	E03	임금근로자	남	30대	2011	직행
22	F01	자영업자	여	30대	2016	경유
23	G01	청년학생	여	20대	2009	경유
24	G02	청년학생	여	20대	2016	경유
25	G03	청년학생	여	20대	2013	경유
26	G04	청년학생	남	30대	2019	경유

자료 : 저자 작성.

연구진은 먼저, 수도권 및 지방에서 일하는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를 심층 면접하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노동 이슈에 관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은 연구진과 연구참여자의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당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심층 면접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이 보고서의 제4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노동경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5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생애사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대략적인 정보만을 기입하였다. 또한 입남 과정에서 중국을 제외한 특정 국가를 경유한 정보가 공개되면 연구참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남 과정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남한으로 바로 온 ‘직행’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장기체류 과정을 거친 ‘경유’로 구분하였다.

## 제 2 장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관련 제도 현황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체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과 관련한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영농정착지원(제17조의 3), 창업지원(제17조의6), 특별임용(제18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제17조의4),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제17조의 5)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제18조의 2) 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체계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지역 하나센터의 3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기획을 담

당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 하나센터를 관리 및 감독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직업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는 통일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지역 단위 실행 조직이며, 전국적으로 25개 하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나센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 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른바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25개 하나센터는 통일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 25개 센터 중에서 7개 센터는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며, 나머지 18개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표 2-1〉 제6기 하나센터 지정현황(2025년 기준)

시·도	센터	운영단체	지정시기	관할 서비스지역
서울 (4)	동부	남북하나재단	'25.1.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10.2.	강서, 은평, 마포, 서대문, 종로, 중구, 용산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10.2.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09.3.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도봉, 중랑
부산	부산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19.1.	전 지역
대구	대구	(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09.3.	대구, 경산
인천	인천	하이사회복지센터	'10.2.	전 지역
광주	광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2.1.	전 지역
대전	대전	생명사회복지관	'09.9.	전 지역(세종 포함)
울산	울산	KVO국제봉사기구	'10.5.	전지역
경기 (6)	동부	남북하나재단	'25.1.	성남, 하남, 구리,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서부	북한인권정보센터	'20.7.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과천
	남부	평택YMCA	'10.7.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화성지역사무소

〈표 2-1〉의 계속

시·도	센터	운영단체	지정시기	관할 서비스지역
경기 (6)	북부	(사)평화와함께	'19.1.	포천, 양주, 연천,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가평
	서북부	(사)더함께새희망	'22.1.	고양, 파주, 김포
	중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18.4.	수원, 안산, 군포, 의왕
강원 (2)	남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10.2.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북부	남북하나재단	'22.1.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양양
충북	충북	남북하나재단	'25.1.	전 지역 * 충주지역사무소
충남	충남	남북하나재단	'25.1.	전 지역
전북	전북	전주YMCA	'22.1.	전 지역
전남	전남	광주구천주교유지재단	'13.1.	전 지역 * 여수지역사무소
경북	경북	(사)경북이주민센터	'10.2.	전 지역(경산 제외) * 포항지역사무소
경남	경남	남북하나재단	'22.1.	전 지역 * 양산지역사무소
제주	제주	남북하나재단	'17.1.	전 지역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각 지역 하나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시하는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자원 연계 및 해결 지원, ② 초기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③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④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수요조사, 취업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의료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⑤ 지원제도 수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조력, ⑥ 통일부와 재단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와 특이사항 보고, ⑦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⑧ 그 밖에 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sup>1)</sup>

1)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ptSignature=QnrvtOekxiPkIgsn74dfsdW9%2BM6NTzcdltXEGhh6CCU%3D&menuPos=11>(접속일 : 2025. 11. 8.).

〈표 2-2〉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2025년 10월 말 기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8	15	3	3	4	2	3	2	2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4	3	3	3	3	4	3	2	86

자료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ptSignature=QnrvtOekxiPklgsn74dfsdW9%2BM6NTzcdltXEGhh6CCU%3D&menuPos=11>(접속일 : 2025. 11. 8.).

각 지역 하나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상담사는 “취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의 두 유형이 존재한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86명의 상담사가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모두 남북하나재단의 직원으로서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를 하나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하나센터에서 일하는 경우와 민간법인에 위탁된 지역 하나센터에서 일하는 경우, 지휘-통제 문제에서 일정 정도 다른 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는 취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로 그 직무가 나뉘어져 있다.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취업상담사와 심리상담사의 비율은 1:1 정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총 3명의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는 지역 하나센터에서는 취업상담사가 1명, 심리상담사가 2명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약 3만 7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심리 상담을 전국적으로 86명이 담당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업무가 과도해지기도 한다.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당사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아래에

서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1.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

### 가. 직업훈련

남한에 와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공공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내 교육 훈련시설에서 진행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훈련 과정에서 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②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③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④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⑤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sup>2)</sup>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수당을 받게 된다.

### 나. 미래행복통장 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이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착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경제활동 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한다.<sup>3)</sup>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로서,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의 금액을 5만 원 단위로 약정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적립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간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통해 형성된 금원은 ① 주택 구입비 또는 전세 및 월세 임대비 및 부대비용, ②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③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④ 결혼비용, 의료비 등의 생활 필요 자금, ⑤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가입, ⑥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등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또는 창업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4년간 최대 5천만 원 적립이 가능하다.<sup>4)</sup>

#### 다. 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취업장려금을 25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3년 근속 시 최대 1,800만 원, 지방의 경우에는 1년 차에는 600만 원, 2년 차에는 700만 원, 3년 차에는 8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라. 새출발 장려금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의 기간 중, 취업장려금을 한번도 지원받지 못했거나, 절반 이하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게 새출발 장려금이 지원된다. 새출발 장려금 역시 취업장려금과 유사하게,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할 것을 기본

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요건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 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3번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장려금을 1년 이하 수급한 사람은 1회 200만 원씩 최대 3회, 총 600만 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는 최대 2회 총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장려금을 2년 이상 수급한 경우는 새출발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다.

## 2.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 가.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남하여 보호 결정된 자가 그 대상이다.

### 나. 우선구매제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5).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야 하며, 월 평균 전체 근로자 수의 5% 이상의 근로자가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한다.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단계

지역 하나센터는 각 관할지역에 거주지 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역 하나센터의 중요한 업무는 사회정착 과

정에서의 일자리 지원이다. 아래에서는 지역 하나센터에서 수행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1단계 : 진로설계 및 취업상담 단계

1단계는 “취업상담 단계”이다. 취업상담 단계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취업희망자의 취업역량평가, 심층 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준비도 검사 등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취업희망자의 취업가능 분야 등이 도출된다.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진로 상담부터 해야 돼요. 초기 진로상담…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나이에 맞게… 그 사람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게… 그런 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 (A03)

## 2. 2단계 : 취업준비 단계

2단계는 “취업준비 단계”이다. 1단계에서 도출된 취업 가능 분야를 토대로,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이다. 취업준비 단계에서는 취업희망자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바우처가 제공되거나, 전문직 양성과정, 진학, 창업, 영농 지원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취업 바우처는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활동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OA컴퓨터자격증 과정,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위한 과정, 취업컨설팅 등을 준비하면서 취업바우처 카드를 통해 각 과정에 대한 수강을 진행한다. 전문직 양성과정 역시 제공되는데, 이 과정은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취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양성과정은 입남 이전, 북한에서의 직업이나 자격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준교사 이

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남한에서의 의료인 면허시험 또는 임용고사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비 및 교재비 등이 제공된다.

### 3. 3단계 : 취업알선 단계

3단계는 “취업알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취업희망자에게 구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취업희망자에 대한 ‘일자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일자리 클리닉에서는 입사지원서 첨삭 및 면접 대비 훈련을 지원하며, 면접용 메이크업 및 이력서 사진촬영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면접과 관련하여 하나센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개인별 발음에 대한 진단 및 사투리 교정, 직장 내 동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지역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는 면접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취업 희망자와 함께 구인 업체에 동행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서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는 취업희망자를 알선해줄 북한이탈주민 채용 희망기업 ‘발굴’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지역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는 자신의 담당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구인업체의 정보를 얻은 후,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 가능 업체 리스트를 작성한다.

“고용센터 구인 담당자님한테 요새 일자리 좀 나오는 거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중에 좀 내가 우리 분들이 갈 수 있는 또 지금 취업 이직한 사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서치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거나...” (A03)

지역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가 직접 여러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전화하고, 취업 가능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 구인업체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가 또 워크넷으로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찾아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구인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려고 해요? 저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이러면 전화를 다 끊는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꼭 다시 전화를 해요. 왜 그렇게 말씀, 그냥 이렇게 끊으시냐? 북한이탈주민… 자기는 필요 없다고 막 이래요. 제가… 채용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정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전화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 데는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탈북민들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별을 당한다고 그제 그런 사람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니까.” (A03)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알선해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채용 기업 발굴을… 요새는 거의 이렇게 회사에서도 연락 오거든요. 이번에도 OO내과 의원이라고 서울 OO구에서 OO구 의사회 회장님이셨는데… 전에 부모님이 실향민이셔가지고 부모님의 뜻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뽑겠다고 재단에 전화했는데… 재단에서 그 지역이 제 담당 지역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A02)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단기연수지원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단기연수지원제도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취업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현장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의 습득, 직업에 대한 체험과 적응과정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단기연수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예비적으로 고용한 후 향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진다. 단기연수지원제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최대 3개월간 단기연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생으로서 월 45만 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단기연수를 제공한 기업은 월 85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일선에서 일하는 지역 하나센터 취업상담사는 단기연수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 취업희망자 및 채용 기업 양쪽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단기 연수를 지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고용

안정률이 높구나... 그리고 저는 계속 일부러라도 이 장려금을 계속 연결을 해 드려요. 그거를 이렇게 명분 삼아서 더 오래 계시 어떻게든 참아보라고... 그리고 고용 촉진 장려금은 오히려 우리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기업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어요. 단기 연수는 짧지만 양쪽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시고... 단기 연수하는 그 3개월 동안 어떻게든 버티요. 버티면 그 기간이 서로한테 어떤 조정의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하고나 아니면 이분 업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만 3개월... 3개월 동안 누구나 좀 버티면 좀 더 버틸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을 버티고요.” (A06)

#### 4. 4단계 : 사후관리 단계

앞서 1-3단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4단계 취업지원시스템은 바로 “사후관리” 단계이다. 지역 하나센터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고용보험가입을 확인하고, 취업장려금을 안내하며, 미래행복통장 가입을 안내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취업 이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하나센터 취업상담사 A01에 따르면, 취업 이후 사후관리 단계는 고용주와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관리하는 단계이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 선배로서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취업상담사의 현장 지지 방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일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가 방문해서 각종 고충이나 고민을 상담하면서 일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요. 일주일 뒤란 말은 없지만 취업자를 그림 달랑 취업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기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사후 관리를 계속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느냐 어려움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는 양쪽으로 하는데... 고용주한테는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분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고용주하고 벌써 먼저 다 들어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또 대상자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혹시 혹시 만약 업체에서 들었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도 업체하고 통화해 봤더니 엄청 잘하신다고 하시던데요.'하고 '그리고 혹시 대인 관계는 혹시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이 그 얘기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살짝 엿는 거죠. 엿어가지고...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냐?' 물어보면서... '스트레스는 그냥 다 많다. 그리고 우리만의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을 우리가 조금 물론 선입견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 사회를 적응하려면 어쩔 수 없는 무게다. 우리가 안고 들어가야 하는 방법이다. 어디서 어서 오라하고 오면 만사 제치고 다 호응해 주는 데는 없다. 내가 사장을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그건 꼭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없는 것 같죠? 선생님들 보기에는? 엄청 심하답니다. 엄청 심하고 나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열두 번도 하죠. 그랬다가는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들 넘어야 할 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착 올바른 성공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정답은 없지만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나는 일하는 게 거기 일하면서 내가 목돈도 마련하고 돈도 절약하고 내가 취업하다 보면 언제 돈 쓸 시간이 없지 않냐 그런 것들이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대상자 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A01)

## 제4절 소 결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는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3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최전선 기관의 특징을 지닌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 구분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를 위한 제도는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 자산형성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과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단계는 진로설계 및 취업상담 단계에서 시작해서, 취업준비 과정 지원, 취업알선, 취업 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된다.

## 제 3 장

### 통계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의 현실

#### 제1절 서론

##### 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란?

2011년에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유일한 통계청 승인 통계이다. 아쉽게도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통계 결과를 내려받아서 연구에 이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조사를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5)을 참고로 하면, 2011년 전수조사 실시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조사대상 기준이나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계속 변경되었다. 2017년에 국가통계로 승인되었으며(승인번호 437001), 3,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다가 2022년부터는 표본이 2,500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조사가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누어 조사항목이 구분된다. 기본사항, 정착실태와 사회통합 공통항목은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건강, 교육, 가족 관련 항목은 짝수 해에, 노동, 사회활동, 복지, 가구 경제 상태 등의 항목은 홀수 해에 실시된다. 아래의 표에서 조사부문과 조사항목을 확인해

〈표 3-1〉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기본사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생년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최종학력</li> </ul>
정착 실태 분야 / 매년 조사 (50)	입국 전 사항(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동기</li> <li>• 탈북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의 직업</li> <li>• 제3국에서의 직업</li> </ul>
	생활안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 주택</li> <li>• 남한 생활 만족도</li> <li>• 남한 생활 만족 이유</li> <li>• 남한 생활 불만족 이유</li> <li>•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li> <li>•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li> <li>•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li> <li>• 자식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li> <li>•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li> </ul>
	직업교육 훈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li> <li>• 직업교육훈련 경험 분야</li> <li>•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부</li> <li>• (직업교육훈련 수료한 경우) 동일분야 근무 여부</li> </ul>	
	일에 관한 사항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li> <li>• 지난주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는지 여부</li> <li>•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는지 여부</li> <li>• 지난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는지 여부</li> <li>• 평소 1주일간 총 근무 시간</li> <li>• 평소 1주일간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li> <li>• 지난주 실제 총 근무 시간</li> <li>• 지난주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li> <li>•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 원하였는지 여부</li> <li>•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여부</li> <li>• 지난 4주간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지 여부</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사업체 유형</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본인 업무 유형</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 근무 시작 년월</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li> <li>•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 정하였는지 여부 및 고용계약기간</li> <li>• 지난 3개월간 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li> <li>• 지난주 사회보험 가입여부</li> <li>•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경로</li> <li>•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기간</li> </ul>	

〈표 3-1〉의 계속

조사부문		조사항목
정착 실태 분야 / 매년 조사 (53)	구직에 관한 사항(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주간 구직 여부</li> <li>•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li> <li>• 지난 4주간 비구직 이유</li> <li>• 구직 기간</li> </ul>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주 직장(일)을 원하였는지 여부</li> <li>•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li> <li>• 지난 4주 내 비구직 이유</li> <li>• 지난 1년간 구직 기간</li> <li>• 지난주 활동상태</li> </ul>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취업 여부</li> <li>•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li> </ul>
매년 공통 (10)	사회적 관계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 만족도</li> <li>•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인원</li> <li>• 평소 교류하는 사람 유무 및 인원 - 대면, 인터넷(눈), 전화 등</li> <li>• 차별·무시당한 경험 - 차별·무시당한 이유</li> </ul>
	자녀 양육과 돌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에 살고 있는 자녀 수</li> <li>•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li> <li>• 한부모 가정 여부</li> <li>• 자녀 양육의 어려움</li> <li>•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은 곳</li> <li>•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li> </ul>
사회 통합 조사 (62)	노동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선택 고려 요인</li> <li>• 일하고 싶은 직장 및 업종</li> <li>•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li> <li>• 일과 가정생활 우선 순위</li> <li>•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 여성 취업 시기에 관한 견해</li> <li>• 실직·전직에 대한 두려움</li> <li>• 근로여건 만족도</li> </ul>
	홀수 년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하는 여가활동(주중/주말)</li> <li>• 여가활동 같이 하는 사람(주중/주말)</li> <li>•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li> <li>• 희망하는 여가활동</li> <li>• 사회단체 참여 여부 - 참여한 사회단체 유형</li> <li>•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 가입 여부 - 북한이탈주민 운영단체 참여 정도</li> <li>• 자원봉사 참여 여부 -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유형</li> <li>•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li> </ul>

〈표 3-1〉의 계속

조사부문		조사항목		
사회 통합 조사 (56)	홀수 년도 (25)	복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여건 만족도</li> <li>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li> <li>노후 준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준비 방법</li> <li>- 준비하지 않은 이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li> <li>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li> <li>(만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 - 구체적 방법</li> </ul>
		가구 경제 상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li> <li>가구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li> <li>가구 소득 금액</li> <li>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li> </ul>	
	짝수 년도 (28)	보건 및 건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 건강상태</li> <li>건강관리 실천 여부</li> <li>흡연 여부</li> <li>음주여부-음주빈도</li> <li>의료기관 이용 여부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li> <li>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 의료기관 서비스 불만족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및 사고 경험 여부</li> <li>치료 및 약 복용 경험 여부 - 치료 및 약 복용 일수</li> <li>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이유</li> <li>스트레스 정도</li> <li>자살 충동 경험 - 자살 충동 이유</li> </ul>
		교육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휴학 · 중퇴 경험</li> <li>대학 휴학 · 중퇴 이유</li> <li>희망 교육 수준 -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li> <li>학생 자녀 유무 - 자녀 거주 지역</li> <li>자녀 기대 교육 수준 - 자녀의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li> <li>자녀 교육비 부담 정도 - 가장 부담되는 항목</li> </ul>	
		가족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와 관계</li> <li>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 · 만 15세 이상 · 취업자 가구원 수</li> <li>배우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출신 지역</li> <li>- 배우자 거주 지역</li> </ul> </li> <li>함께 사는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노후 부양에 대한 견해 - 가족 중 부모 부양하는 구성원</li> <li>결혼에 대한 견해</li> <li>이혼에 대한 견해</li> <li>재혼에 대한 견해</li> <li>가사분담에 대한 견해</li> <li>가사분담 실태</li> <li>가족관계 만족도</li> </ul>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5), pp.6~8.

볼 수 있다.

## 2. 응답자 분포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대체로 응답자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성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연령대별 구성에서는 점차 연령대가 상향하고 있음을 보여 40대 이하는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반대로 50대 이상은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현재 50대 이상이 41.6%이며,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15.4%이다. 고령사회 기준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지역으로는 63~65% 수준으로 수도권이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서울, 인천의 순이며, 비수도권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 거주기간은 명확히 장기 체류로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2017년에는 28.8%였으나 점차 늘어나서 2021년에는 5.1%로 절반을 넘어서고, 2024년 현재 69.0%이다. 말하자면, 북한이탈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아직 고졸 이하가 67.6%로 절대다수이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은 3.4%로 매우 적은 편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민은 2024년 현재 31.1%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고학력자가 유입되지 않고, 자녀 집단에서 최종학력이 종료된다면, 더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이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민의 경제활동실태는 취업자가 2017년 56.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4년 현재 60.1%이다.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38.1%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 39.4%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4년 현재 35.9%이다.

〈표 3-2〉 응답자 특성 추이(2017~2018)

(단위: %)

특성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성별	남자	25.1	25.2	24.6	23.9	24.0	24.5	24.7	24.7
	여자	74.9	74.8	75.4	76.1	76.0	75.5	75.3	75.3
연령별	15~19세	2.4	2.9	2.8	2.6	2.4	2.1	1.8	1.5
	20대	17.9	16.0	15.0	13.8	12.3	10.6	9.1	7.9
	30대	25.6	25.4	25.2	25.0	24.5	24.3	23.4	22.7
	40대	31.4	30.5	30.1	28.9	28.5	27.8	27.0	26.3
	50대	13.8	17.5	17.9	18.7	21.1	23.2	26.0	26.2
	60대 이상	8.9	7.7	9.0	11.0	11.3	12.1	12.7	15.4
거주 지역별	수도권	63.3	63.4	64.1	64.8	64.8	64.6	64.8	65.1
	서울	25.3	23.9	24.2	25.7	23.7	19.9	19.9	21.1
	경기	28.4	31.1	32.5	30.7	30.4	32.1	33.8	33.5
	인천	9.6	8.4	7.4	8.4	10.6	12.6	11.1	10.6
	비수도권	36.7	36.6	35.9	35.2	35.2	35.4	35.2	34.9
남한 거주 기간별	3년 미만	12.4	9.9	13.2	12.1	8.2	4.1	1.3	0.9
	3~5년 미만	10.6	9.7	8.1	7.3	7.8	7.3	6.8	3.8
	5~10년 미만	48.2	47.2	43.7	37.5	29.9	28.3	19.9	26.2
	10년 이상	28.8	33.2	35.0	43.1	54.1	60.2	72.0	69.0
남북 통합 학력별	초졸 이하	2.8	3.4	3.3	3.2	3.7	4.2	3.4	3.4
	중/고졸	68.6	67.6	66.2	65.3	67.0	66.0	64.4	64.2
	전문대졸	14.7	14.0	14.4	14.4	11.1	12.8	14.3	13.0
	대재 이상	12.2	13.7	14.8	15.2	17.9	16.6	17.5	19.1
	기타/무응답	1.6	1.3	1.3	1.8	0.3	0.4	0.4	0.2
경제 활동별	취업자	56.0	59.3	57.4	53.7	56.7	59.2	60.5	60.1
	실업자	4.2	4.4	3.9	5.6	4.6	3.8	2.9	4.0
	비경활	38.1	34.5	37.4	39.4	38.7	37.0	36.6	35.9
	판별 불가	1.6	1.8	1.4	1.3	-	-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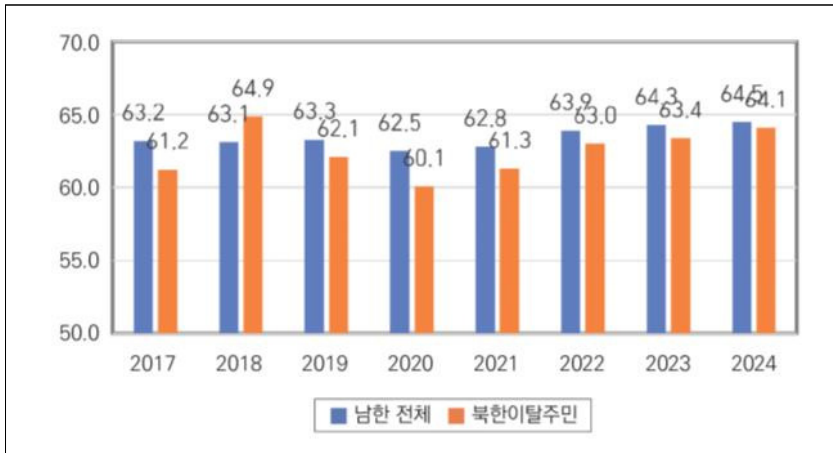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 1. 경제활동참가율

서론에서 개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먼저 남한 주민<sup>5)</sup>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본다. 남한 주민 전체의 경우도 2017~2024년에는 대체로 63~65%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2018년만 제외하면, 추세도 유사하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20년의 경우에 남한 주민 전체는 전년 대비 0.8%p의 감소를 나타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2.0%p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1]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7~2024)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북한이탈주민과 구분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대상 전체를 '남한 주민'이라 표현하기로 한다. 개념적으로는 남한 주민 전체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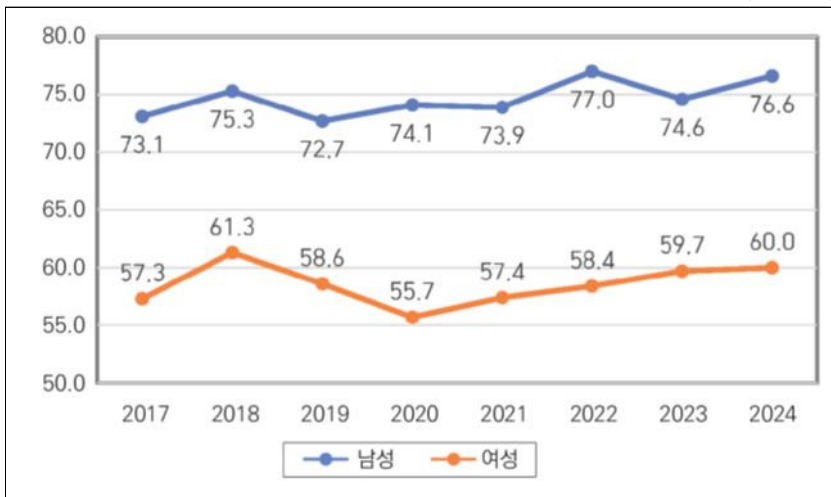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회복도 빨라서 2024년 현재 남한 주민 전체와 비교해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0.4%p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2.0%p였으며, 2019년에 2.4%p까지 늘어났던 사실을 참고로 한다면, 빠른 회복세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이다.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73~77%, 여성은 56~61%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남성에게 영향이 없었으나 여성에게는 크게 나타났다. 202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7%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다. 그 뒤로 점차 회복하였으며, 2024년 현재 남성과 16.6%p 차이를 나타낸다. 2017년에는 이 차이가 15.8%p였음을 감안한다면, 아직 완전한 회복이라 하기는 어렵다.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70%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았음도 확인해볼 수 있다. 60대 이상도 점차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표 3-3〉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5~19세	13.9	15.8	11.0	12.5	9.2	11.6	15.9	17.6
20대	52.0	58.2	53.0	56.8	55.0	59.9	63.0	67.0
30대	66.6	66.3	63.3	63.8	65.5	67.8	67.6	67.9
40대	73.3	77.2	75.6	68.7	69.7	71.9	70.6	72.3
50대	69.5	71.8	70.8	68.3	72.4	69.0	67.4	70.4
60대 이상	22.1	27.8	28.1	31.1	28.2	32.6	38.9	36.9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 지역 거주자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 거주자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이는 2021년부터 나타나는 양상으로 인천 지역 거주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력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다만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 2023년과 2024년에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특성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라 하겠다.

〈표 3-4〉 거주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도권	59.9	64.9	60.0	58.3	60.0	61.8	62.7	62.3
서울	56.8	60.2	52.8	52.8	58.6	60.4	63.6	63.6
경기	63.6	69.5	65.5	64.4	62.2	64.2	63.4	62.0
인천	57.4	61.6	59.1	53.2	56.6	57.9	58.6	61.1
비수도권	63.5	64.6	65.9	63.4	63.8	65.2	64.7	67.4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표 3-5〉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7~2024)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졸 이하	44.2	47.9	42.5	47.5	40.3	42.4	38.4	39.1
중졸/고졸	60.4	62.9	61.3	58.3	59.3	59.8	60.6	61.0
전문대졸	64.8	70.7	66.7	63.0	66.3	68.3	67.6	73.8
대재 이상	70.8	77.6	70.3	71.3	70.1	76.5	75.1	72.7
기타/무응답	21.8	12.5	11.7	31.0	55.1	69.3	53.4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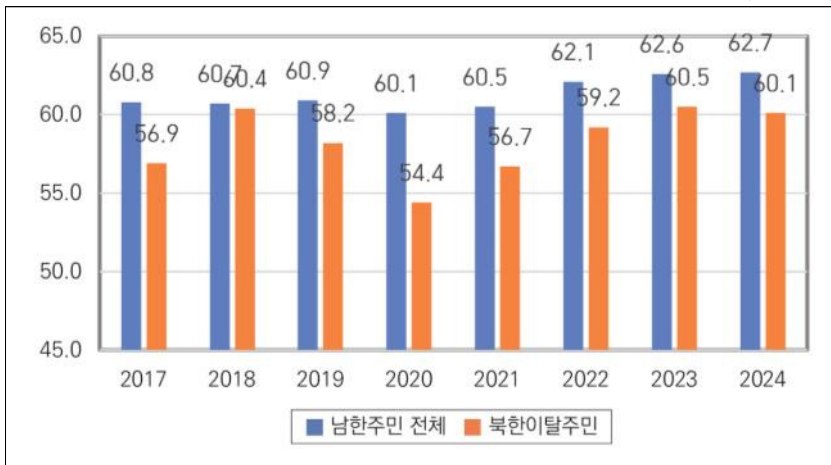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 2. 고용률

고용률을 남한주민 전체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컸음을 볼 수 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고용률에서 남한주민 전체가 0.8%p 감소한 사실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3.8%p 감소를 보였다. 물론 회복도 빨라서 2024년 현재 남한이탈주민의 고용률보다 2.6%p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2017년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3.0%p였다.

[그림 3-3] 고용률 비교(2017~2024)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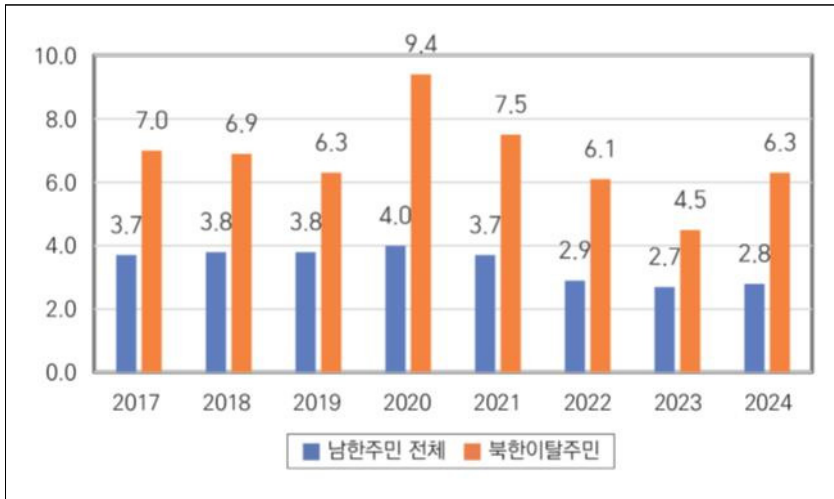
### 3. 실업률

실업률은 남한주민 전체와 비교할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2017년에 차이가 3.3%p였으나 2024년 현재 이 차이가 3.5%p여서 그다지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영향은 이 차이를 5.4%p로 늘려놓았다. 2020년 이후로 줄어들던 실업률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8%p 증가한 결과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성이 직접 받았음을 알게 된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에 7.7%로 전년 대비 2.6%p 증가한 결과를 보여 실업대책이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4] 실업률 비교(2017~2024)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그림 3-6] 성별 실업률 추이(2017~2024)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1. 10.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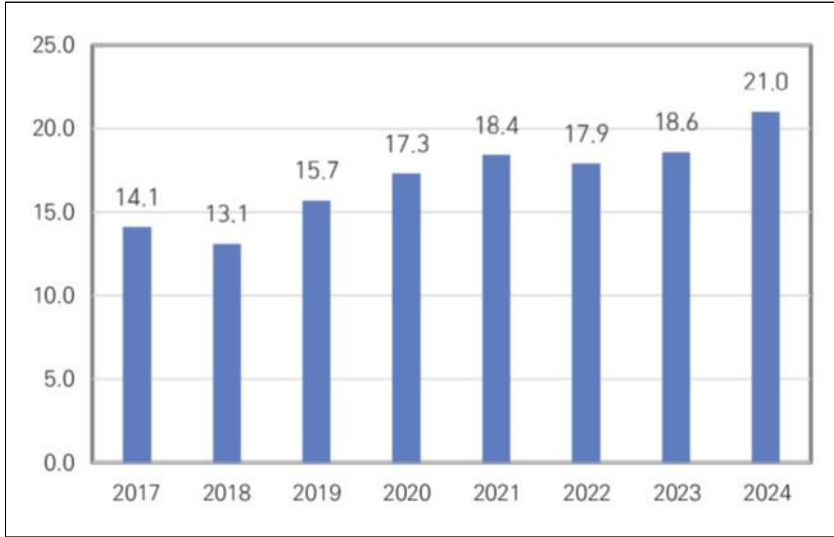
####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먼저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24년에는 21.0%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10명 가운데 2명이 비임금근로 영역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추세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가 어렵거나 이를 꺼릴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조사하였다. 이를 참고로 하면,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는 57.5%가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5.9%이며, 현재 사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16.1%였다. 이후의 조사에서는 사업시작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림 3-7] 비임금근로자비율 추이(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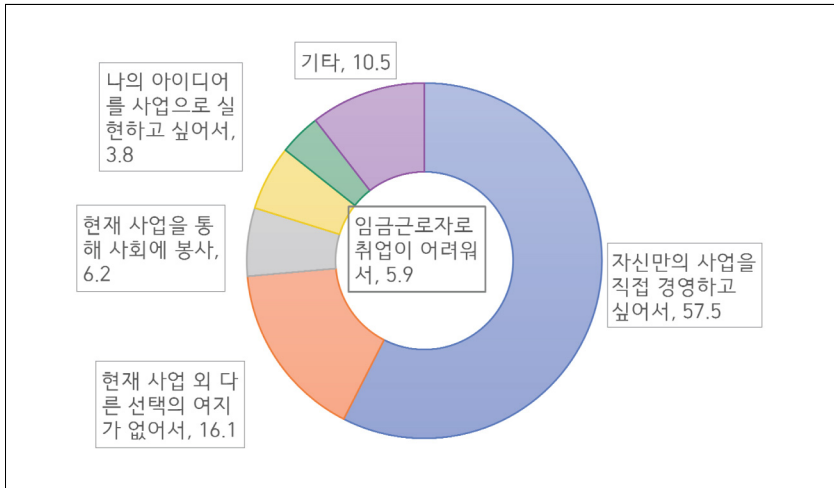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그림 3-7] 사업시작 동기(2017)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 5. 취업자의 업종과 직업

취업자의 업종은 2024년 현재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이었다. 성별로는 차이를 보여 남성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큰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사하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일하고 있었다.

〈표 3-6〉 취업자 업종별 분포(2024)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제조업	15.8	17.6	15.0	18.6	5.2
숙박 및 음식점업	15.4	6.1	19.5	14.9	1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2.7	17.5	14.8	6.0
도매 및 소매업	7.4	5.6	8.2	6.4	11.3
건설업	9.1	18.9	4.8	9.8	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	3.8	7.9	5.0	12.7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7	10.5	6.4	8.3	5.4
운수 및 창고업	5.4	12.8	2.1	4.4	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2.0	2.8	3.3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	2.7	3.7	2.8	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3.1	1.6	2.3	1.3
교육 서비스업	2.6	1.8	3.0	2.7	2.1
농업, 임업 및 어업	2.4	1.8	2.7	0.8	8.4
정보통신업	1.3	1.7	1.1	1.4	1.0
금융 및 보험업	2.0	1.1	2.4	1.6	3.5
부동산업	0.2	0.3	0.2	0.1	0.7
기타	3.0	7.3	1.1	2.8	3.6

자료: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24(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표 3-7〉 취업자 직업별 분포(2024)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단순 노무 종사자	27.1	23.6	28.7	31.5	10.8
서비스 종사자	22.4	12.6	26.7	23.6	17.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8	8.0	10.6	9.9	9.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3	20.8	2.9	9.3	4.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	12.5	2.8	6.1	4.5
사무 종사자	7.8	3.8	9.6	9.6	1.0
관리자	10.4	12.9	9.3	4.1	33.9
판매 종사자	6.7	4.0	7.9	5.3	12.2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7	1.6	1.7	0.6	5.6
군인	0.1	0.2	0.0	0.1	0.0

자료: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24(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다음으로 직업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다. 이는 임금근로자에게서 두드러진다. 단순 노무 종사자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이며 여성의 경우에 이 비중이 높다.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

## 제3절 임금근로자의 근로 실태

### 1. 임금근로자의 구직

#### 가. 구직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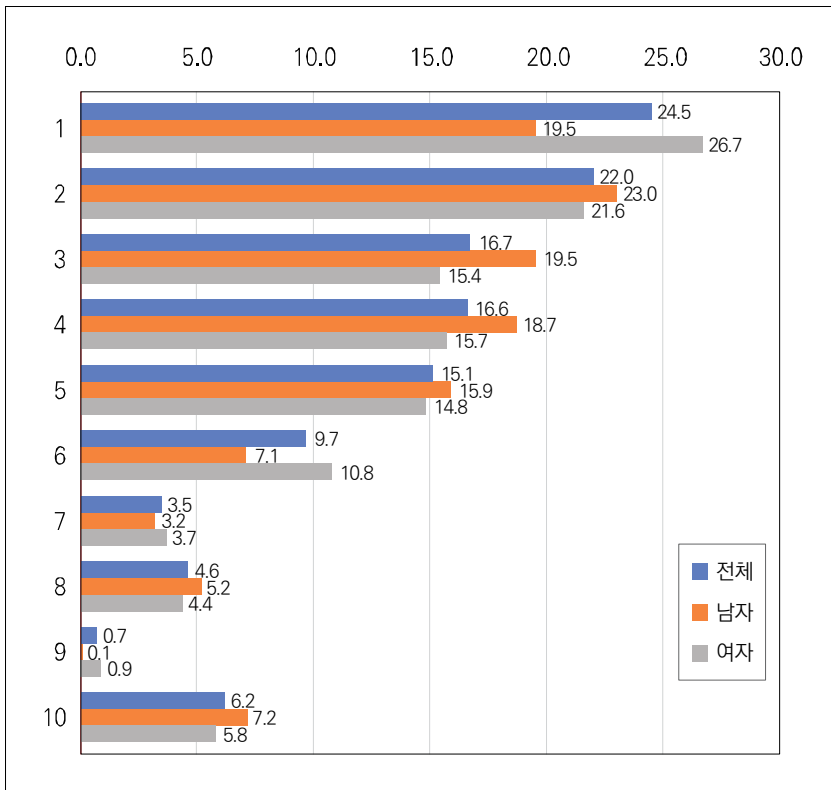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주요한 구직경로라 한다면, 개인적인 네트워크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가 22.0%, 북한이탈주민 친척, 친구, 동료가 16.7%로,<sup>6)</sup> 이 두 수치를 합한다면 38.7%에 이른다. 말하자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4), p.58.

면,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은 개인적 네트워크로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였다고 하겠다. 이는 남성이 42.5%로 여성(37.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음이 인터넷, TV 등의 대중매체로 24.5%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취업알선기관으로는 민간과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비중이 높다.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가 상대적으로 역할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림 3-8]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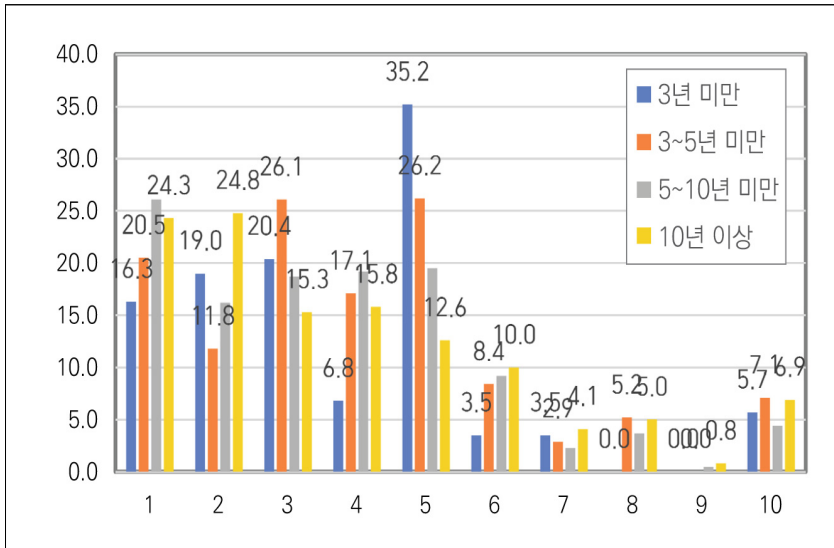
주 : 1: 대중매체(인터넷 검색, TV, 신문, 잡지, 광고 등), 2: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 3: 북한이탈주민 친척, 친구, 동료, 4: 민간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잡코리아, 직업소개소 등), 5: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전문상담사), 6: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7: 시청/군청/구청의 일자리 센터, 8: 학교, 학원의 추천/소개/의뢰,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 기타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24(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눈에 띈다. 남한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남북 하나재단/하나센터를 주요한 구직경로로 하는 특성을 보이며, 반대로 남한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사회 정착의 한 단면을 구직경로로부터 관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가 고용센터를 구직경로로 이용한 비율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그림 3-9] 남한거주기간별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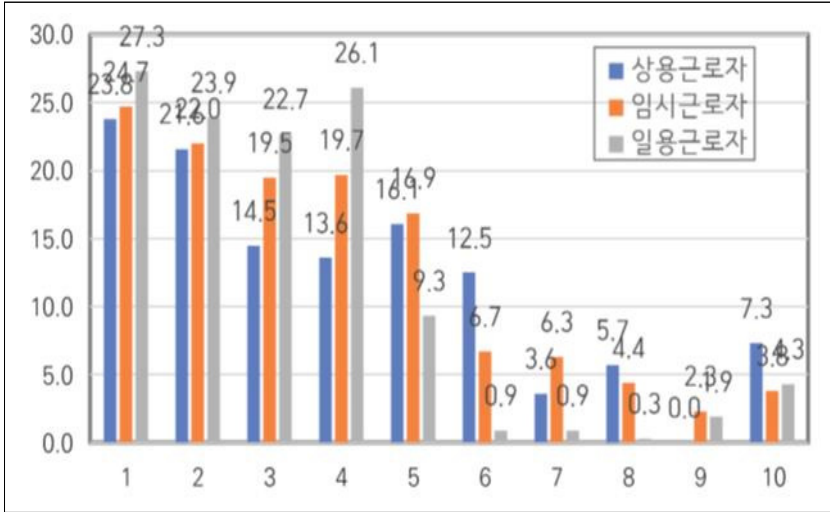


주 : 1: 대중매체(인터넷 검색, TV, 신문, 잡지, 광고 등), 2: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 3: 북한이탈주민 친척, 친구, 동료, 4: 민간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잡코리아, 직업소개소 등), 5: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전문상담사), 6: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등), 7: 시청/군청/구청의 일자리 센터, 8: 학교, 학원의 추천/소개/의뢰,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 기타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24(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그림 3-10]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구직경로(2024)

(단위 : %)



주 : 1: 대중매체(인터넷 검색, TV, 신문, 잡지, 광고 등), 2: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 3: 북한이탈주민 친척, 친구, 동료, 4: 민간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잡코리아, 직업소개소 등), 5: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전문상담사), 6: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7: 시청/군청/구청의 일자리 센터, 8: 학교, 학원의 추천/소개/의뢰,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 기타

자료: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24(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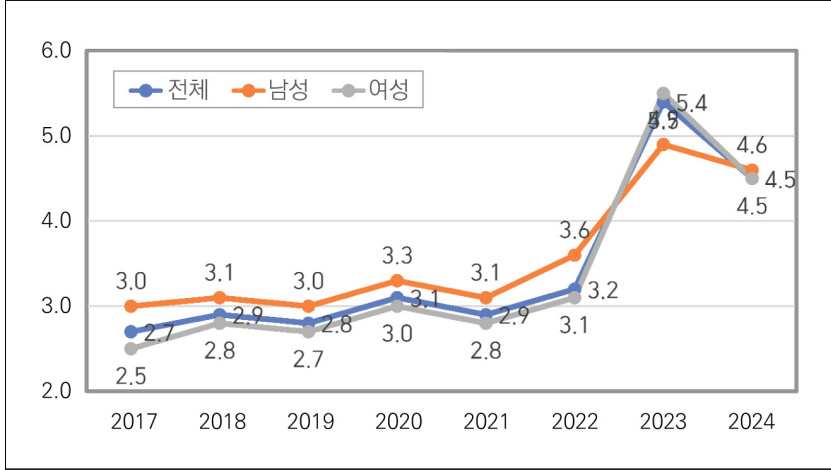
### 나. 구직기간

평균 구직기간은 3개월 정도이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2022년의 평균 구직기간이 3.2개월로 2021년보다 0.3개월 길어지면서 2023년에는 5.4개월, 2024년에는 4.5개월로 길어졌다.

이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임시근로자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임시근로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2023년 10.9개월로 치솟은 뒤에 2024년에 낮아지긴 하였으나 5.8개월로 반년 정도는 구직하여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평균 구직기간(2017~2024)

(단위 : 개월)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표 3-8〉 종사상지위별 평균 구직기간(2017~2024)

(단위 : 개월)

	2021	2022	2023	2024
상용근로자	3.2	3.5	4.4	4.6
임시근로자	2.1	2.6	10.9	5.8
일용근로자	2.3	2.5	4.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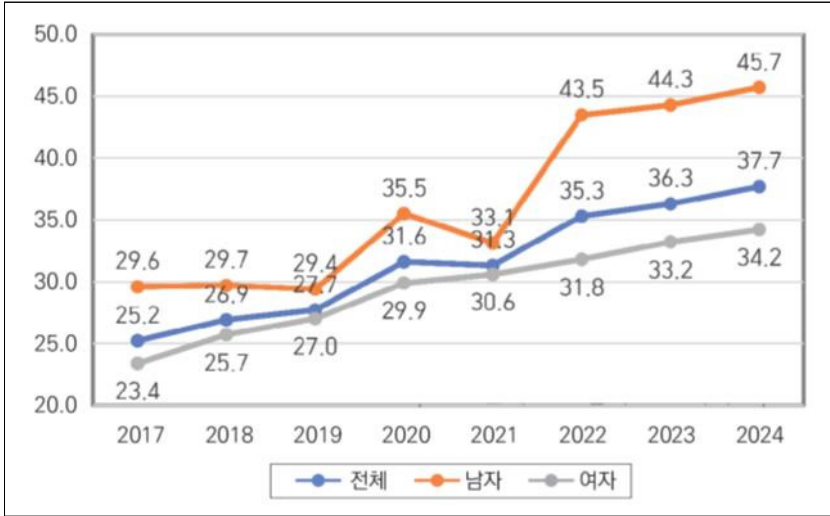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 2.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은 갈수록 길어져 2024년 현재 37.7개월로 3년을 넘어선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1년 정도 근속기간이 더욱 길어졌다고 하겠다.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4년 현재 45.7개월이다. 이와 달리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에 비하여 느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2017년에 남녀 간 차이가 6개월이던 것이 2024년 현재 11.5개월로 약 1년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 평균 근속기간(2017~2024)

(단위 : 개월)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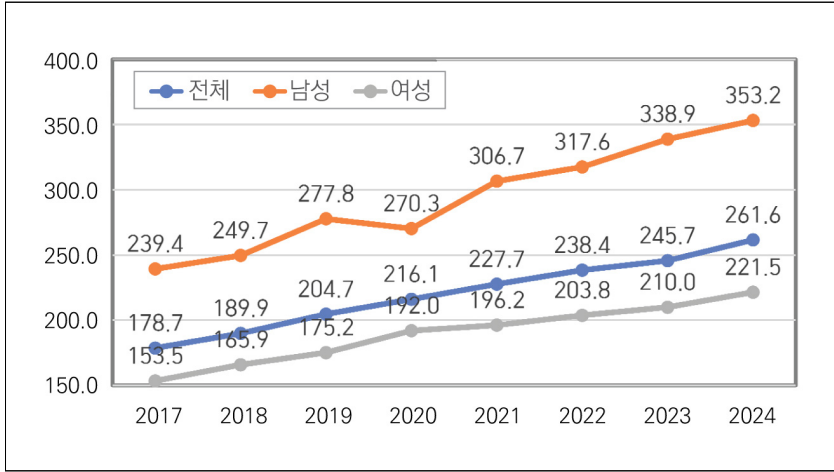
### 3. 평균 임금 수준

2024년 현재 평균 임금 수준은 26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53.2만 원, 여성은 221.5만 원으로 남녀 간 차이가 131.7만 원이다. 이 차이가 2017년에 85.9만 원이었음을 볼 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임금 수준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특성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4년 통계를 참고하면, 4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임금 수준을 보이며, 50대가 30대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숙련, 경험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겠다. 물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3-13] 평균 임금수준(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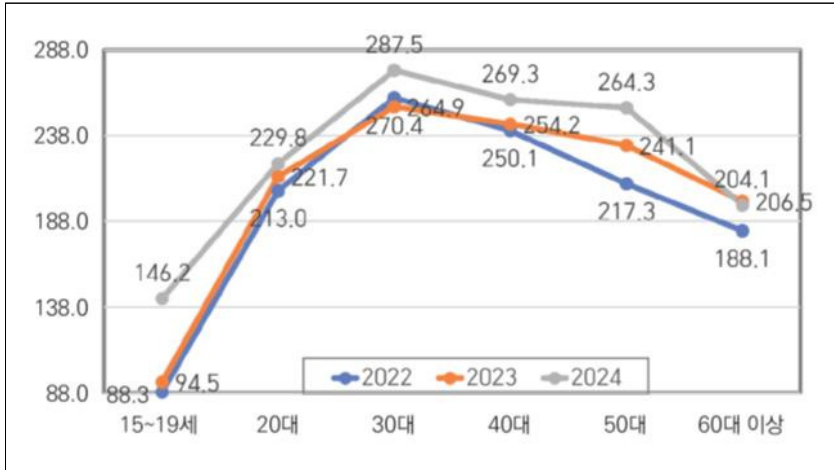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그림 3-14] 연령대별 평균 임금수준(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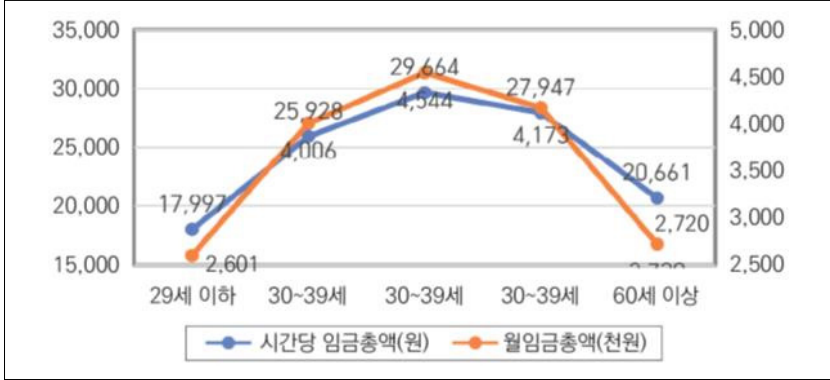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그림 3-15]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수준(2024)

(단위 : 원,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표 3-9> 남북통합학력 평균 임금수준(2022~2024)

(단위 : 만 원)

	2022	2023	2024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4.4	225.6	247.4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	232.3	238.3	246.9
전문대학 졸업 이하	235.0	244.9	272.1
대학교 재학 이상	259.8	270.4	297.3
기타/무응답	244.9	202.3	188.3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 4.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024년 현재 66.1%이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 속에 수급권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비율로는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의 사각지대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대신 상용근로자와 달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일용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다만 이미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수급권자가 포함된 수치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 수는 많지 않을 것

〈표 3-10〉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가입 여부(2024)

(단위 :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하지 않음(수급권자 포함)
전 체	66.1	8.4	25.5
남성	69.9	8.3	21.8
여성	64.4	8.5	27.1
상용근로자	83.4	4.7	11.9
임시근로자	40.7	13.4	45.9
일용근로자	19.2	19.0	61.7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의료수급권자, 피부양자인 경우는 91.6%이다. 그런데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13.3%와 24.5%이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상용근로자의 6.7%도 지역가입자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71.7%가 가입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89.1%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임시근로자는 46.2%, 일용근로자는 24.6%가 가입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건강보험 가입 여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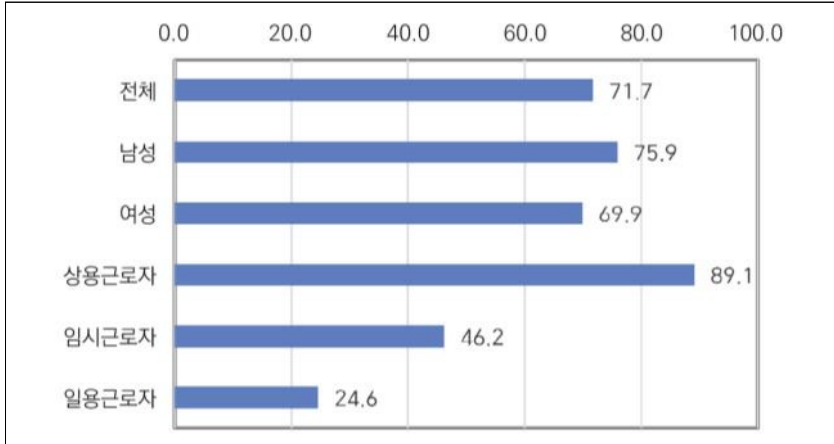
(단위 :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 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가입하지 않음
전 체	67.4	13.0	9.0	2.3	8.4
남성	73.6	12.2	5.9	0.6	7.7
여성	64.7	13.3	10.3	3.1	8.6
상용근로자	83.7	6.7	5.4	0.8	3.3
임시근로자	45.2	21.1	17.1	3.4	13.3
일용근로자	21.2	31.1	15.6	7.5	24.5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그림 3-16] 고용보험 가입비율(2024)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2. 접속).

## 제4절 비경제활동인구

지금까지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제는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점차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보여 남성은 2021년에 2020년과 비교할 때, 0.2%p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20년에 2019년과 비교하여 2.9%p 증가하였음을 보인다.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 감소도 확인이 되지만, 2020년 이후에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 감소가 확연하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노동시장 참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지는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를 담당하기 위한 실망실업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로 볼 수 있으며, 남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거나 안정감을 느껴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정보 불일치(information mismatch)의 해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7] 성별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추이(2017~2024)

(단위 : %)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3. 접속).

2024년의 경우에 활동상태별로 보면, 심신장애(건강 문제)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35.5%를 차지한다. 50대는 이 비율이 56.3%로 가장 높다. 그리고 청년은 교육 영역에 머무르고 있음도 보인다.

〈표 3-12〉 활동상태별/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비율(2024)

(단위 : %)

	소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심신장애(건강문제)	35.5	0.0	6.7	11.9	40.5	56.3	44.9
육아	19.1	0.0	27.8	56.2	22.7	1.8	2.5
정규교육기관 통학	9.8	76.8	44.8	7.6	5.2	5.1	0.5
가사(집안일)	8.3	1.5	0.9	3.3	10.1	15.1	8.3
연로	8.2	0.0	0.0	0.0	0.0	0.0	30.2
쉬었음	8.1	1.7	3.3	4.1	4.8	12.2	12.3
취업준비	3.5	0.0	2.9	10.6	3.2	2.4	0.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2.8	0.0	3.7	1.4	6.8	3.9	0.0
진학 준비	1.6	17.0	7.5	2.1	0.0	0.2	0.0
입시학원 통학	0.1	2.3	0.0	0.0	0.0	0.0	0.0
기타	3.1	0.7	2.4	2.8	6.8	2.9	1.2

자료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국가통계포털, 2025. 12. 3. 접속).

## 제5절 요약과 결론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집계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서 결과로부터 얻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2017~2024년 8년간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6할을 넘어서는 주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으며, 장기 체류로 이행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아직 고졸 이하가 67.6%로 절대다수라는 점은 이들의 노동시장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할 특성이기도 하다.

2017~2024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3~65% 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컸으나 회복도 빨랐음을 통계는 확인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과 함께 2020년 이후로 줄어들던 실업률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8%p 증가한 결과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이 주요한 정책 대상이라는 사실도 통계에서 입증된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비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업종으로는 남성은 건설업과 제조업,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남녀 모두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임금근로자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2024년 현재 평균 임금 수준은 26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53.2만 원, 여성은 221.5만 원으로 남녀 간 차이가 131.7만 원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큰 편이다. 임금 분포에서 한 가지 특징은 연령대별로 볼 때,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2022년 이후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24년의 경우에 심신장애(건강 문제)로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50대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집계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본 경제활동의 특성이라 심도가 있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장기 체류 상황으로 진전되면서 점차 남한 노동시장에 정착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고 있음에도 실업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이 여전히 노동시장 참가와 취업 활동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도 사회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심신장애를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이들에게도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 제 4 장

###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경험

#### 제1절 서론

일자리를 얻는 과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 성원으로 정착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의 경우, 이주한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직업생활을 유지하는지는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노동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과 적응, 그리고 이탈 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노동시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경험을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준비과정과 이동 과정을 주목한다. 즉, 남한에 오기 전의 경력과 자격에 따른 취업과 이동 경로,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일터 경험을 분석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이후 일터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분석하면서, 개인의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진이 인터뷰한 북한이탈주민을 현재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비임금근로자, 3) 노동시장 진입 준비 중인 청년세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서술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경험을 분석할 때, 해당 인구집단의 성별,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과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주로 고정적인 것인 반면, 노동시장 지위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가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점은 특히, 특정 사회에서의 이른바 취약계층의 노동경험을 다룰 때 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이 클수록,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경험을 분석할 때, 연구진이 면접조사를 진행할 당시의 인터뷰 참여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제2절 임금근로자

2024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참여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1.4%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53.5%, 임시직은 12.5%, 일용직은 1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7.7개월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입남 이후, 임금근로자로 일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취업 준비하기 과정

#### 가. 언제 취업할 것인가?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은 곧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북한에서처럼 '배정'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찾는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이 언제 취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원을 퇴소하고,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구진과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 퇴소 후 이 기간을 “준비 기간” 또는 “알아보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C04의 경우, 기초수급비가 나오는 동안 학교를 다니는 선택을 하였다.

“나라에서 저희가 5년 동안 오게 되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일을 터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준비해 주면서 나라에서 수급비를 기초수급비를 내줘요. 그걸로 받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C04)

C04는 이 기간 동안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C04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국정원에서 3개월을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나가게 되면 컴퓨터 모르면 아무것도 이 사회에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펙이라는 게 자격이 없으면 어디 가서…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 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랄라도… 대학교 사회복지사… 어느 대학교 졸업했다는 그게 스펙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C04)

C04는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그 일은 이른바 무등록, 비공식적으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일자리였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려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주말 아니면 뭐 월수금 하루에 한 주에 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공부하는 날에는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날 하고 날짜를 맞춰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기초수급비 40~50만 원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수급비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C04)

진학을 하는 유형 이외에도, 일단 남한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

트부터 해보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C05는 거주지에 전입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부터 시작하였다. C05는 이에 대해 “여기 와서, 이력서에 뭘 넣을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처음 와서는… 편의점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력서에 뭘 넣을 수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이력서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4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면접 보고 된다고 하면 1개월짜리도 일 해보고 3개월짜리도 일해보고… 마트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C05)

C06는 남한에 올 당시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C06은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는데, 하나원 입소기간 중,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거동하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원을 퇴소한 C06은 지금 당장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공관절 수술… 대퇴 여기 영치 있는 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쌍지팡이에 휠체어 타고 3월 27일에 퇴소했습니다. 그때 하나원 선생님들이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정착 하겠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살아가겠나 아무 도움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나…” (C06)

일단 남한에 왔으니,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보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지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시도한다. “무엇이든 해보자”라고 마음먹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에 먼저 와 있던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첫 일의 시작이었다.

“친구들이 몇 명이 모아서 갔는데 나도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7만 원 벌이 그래서 가서 포도 따면 저녁엔 그래서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수술한 다리니까 땡땡 부가지고서는 그래서 막 가위로 바지 막 자르고 이러면 다음 날에 또 나가고 그러면서 한국에 오니까 정말 내가 별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도 따라도 다녀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식료품 회사에 가서 식혜 만드는 데 그런 데 가서 또 일하다가 사장님이 물질하니까 장화 신고 물질하니까 미끄러져서 자빠질까 봐 또 걱정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한 두 달 하다가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C06)

### 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남한에 오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교육 이수한 이후,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하나원 및 하나센터에서의 상담 과정이다.

연구참여자 C11은 하나센터의 취업 관련 설문조사 및 상담과정의 결과는 항상 “사무직”이었다고 한다.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상담 이렇게 받으면 항상 사무직 용으로 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계속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 하나센터에서도…” (C11)

사무직으로 추천을 해준다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서 취업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해주는 대로 취업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남한에 언제 왔으며, 본인 나이가 몇 살인가라는 점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연구참여자 C11은 사무직군으로 추천받고,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고민하면서,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

“그때… 44살이었어요. 근데 그게 4년짜리 저렇게 하면 거진 50대가 되는 데… 내가 사회복지사에 취직할들…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는 애들도 엄청 똑똑한 애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C11)

하나센터에서 추천받은 사무직군의 일자리가 자신의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C11은 “40대 중반 여성”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에는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는 ‘자격증’ 취득의 장점이 있었다.

“하나원에서 얘기하기를 사회 나가면 일자리 찾기 힘들다. 한국은 자격증이 있어야 일자리를 쉽게 찾는다. 그래서 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나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45세니까…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에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 해서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15년도에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C07)

자격증을 소지하여 취업한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하였다고 한다. 자격증은 남한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관문이자, 일의 만족을 위한 기초 단계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었으면 하나센터에서 직업 체험한… 화장품 공장이나 미화원 뭐 이런 일자리를 했을 텐데…이런 데서는 나한테 적성에도 안 맞고 일의 속도도 못 따라가는… 근데 내가 자격증을 따으로써 좀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C07)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06은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남한에 오게 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농장, 식료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자신의 불편한 신체로 일이 힘들거나, 관리자가 걱정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여러 번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그 포도 따러 다닐 때도… 또 식혜 공장도 다니고… 또 유니폼 회사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OO백화점 가서 재봉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옷 수리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진짜 해봤어요. 그다음에 또 OO 산부인과 병원 가서

또 빨래도 해보고 세탁도 정말... 그 17년도 3월달에 하나원 나와서 18년도 말에 지금 회사 취업하기 전까지는 정말 부지런히... 근데 다 하다가는 안 됐어요. 다들 마음에 안 놓여서... 다리...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 저니까. 다리 절잖아요.” (C06)

## 2.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차적으로는 하나센터의 도움이 남한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센터의 도움에 대한 평가가 약간씩 다르다.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임금근로자의 구직경로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지인의 소개를 통한 취업이 16.7%,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지인의 소개를 통한 취업은 22.0%로 나타났다. 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를 통한 구직 비중은 이보다 낮은 15.1%로 나타났다.

### 가. 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의 도움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각종 취업 전 교육,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센터를 통해 직업 및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이 취업에 제대로 연결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은 하나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감사함의 인식을 보여준다.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한 연구참여자 C07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 자신이 직업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복지가 너무 좋고 우리 새터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런 복지가 없고 새터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일 오래 일 못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 누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지 하는데... 하나센터에서 교육도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와서 적응할 수 있게 강의 선생님들

이 강의 선생님들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 간호조무사 할 때도… 그러니까 요 양보호사는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컴퓨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센터에서 컴퓨터도 교육받고 진짜 공짜로 다 교육받고 너무 고맙거든요. 지금은 컴퓨터를 엑셀까지 못 해도 문서 작성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C07)

하나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은 최근에 입남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C11에 따르면, 남한 사회에 대해 웬만큼 아는 사람은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 거는 다 금방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일자리 잡지 못해서 하나센터에다 의뢰하지 웬만큼 눈 돌아가고 웬만큼 저거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일자리를 잡아요. 하나센터에다 의뢰를 안 해요. 일자리를 자기가 그만큼 찾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로 손 내미는 거잖아요.” (C11)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취업 교육을 받길 원하거나, 취업알선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락을 돌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하나센터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C05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하나센터의 취업 교육과 취업알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센터 취업상담사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같은 북한이탈주민인데, 남한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느냐는 오해와 의심이 있다는 것이다.

“제가 OO하나센터 OO쌤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센터를 연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센터를 안 통하고 지인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OO쌤 알기 전까지는 하나센터에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재단에서 탈북민을 위한 무슨 사업이라는 데 참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 나오자마자 대부분은 신변 보호 경찰관들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와서 이렇게 AA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DD지역에서도 그 신변 보호 경찰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연락을 딱 끊고 이렇게 나와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 연락도 없고 대부분들은 잘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하나센터도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연락을 안 하니깐 그리고 그쪽에서 연락은 왔는데 불편한 게 없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셔라 하는데 제가 안 궁금하니깐 연락을 안 드린 거라서 끊어진 거지. 그전에도 제가 하나 재단 취업상담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뭐 편의점에서도 가서 일해보고 저도 지인 통해서 일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센터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작은 소문이라는 게 근데 그분들도 우리랑 같이 나왔는데 대체 뭘 알겠냐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센터 가서 상담받아도...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뭐 별 특별할 게 있느냐...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인의 말을 따라 지인의 편의점에서 일했었어요. (C05)

하나센터 취업교육은 대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남한에 와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했던 C06을 상대로 관할 하나센터에서는 복수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그중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취업처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하나센터에서 취업 교육 있어가지고 그거 한 보름인가 다녔거든요. 스피치 강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니다가 그다음에 현장으로 나가보자 해서 지금 제가 일하는 미화업체 OOO 하고 그다음에 이 DD공단에 화장품 생산하는 데... 그 두 군데를 다 저희들 다 방문시켜가지고 현장 가봤는데... 내가 다리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깐 서서 공단에서 서서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미화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화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 몸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8년도 11월 달에 단기 연수가 끝나서 한 달 만에 회사에서 이력서 써내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하니깐 오늘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C06)

#### 나. 신변보호담당관 - 거주지 경찰서 형사

연구참여자 중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변보호담당관이 남한에 와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가장 가

깝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변보호관이 비록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신변보호관의 꾸준한 관심은 취업하는 과정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정서적 지지로 작용했다고 한다.

“신변보호 형사님한테, 일자리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형사님이 ‘일자리 내가 잡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취직하고 나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취직했다며?’ 그래 계속 나한테 오히려 정착도우미보다… 그 형사님이 진짜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꼭꼭 밥 사주고, 애로 되는 거 뭐 있나, 생활 어려운 게 뭐 있나 하고 뭔가 나오면 알아서 진짜 혼자서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산다고 그 경찰서에 나오는 물품이 더 많더라고요. 그걸 박스를 딱 갖다가 복도에다 딱 넣고 가고 그 형사님이 그랬어요.” (C11)

#### 다. 지인의 소개

북한이탈주민은 지인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이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지인을 통한 취업 또는 지인을 통한 구직 활동은 해당 지인의 네트워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인을 통한 취업의 경우, 주로 먼저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친구가 동생이 먼저 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이 교회 좋다 해서 그래서 와서 바로 교회에 다녔어요. 저는 원래 하나원에서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북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인력사무소 가면 괜찮다 해서… 동네에 인력사무소가 많잖아요.” (C10)

### 3. 일터에서의 관계 맺기

#### 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노동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자신의 직업 생활의 지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한 C11은 여러 공정들로 이루어진 작업장에서 다양한 공정에 대한 일을 배우고 싶었으나, 단순 업무만 시키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동료가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일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맨 처음에 절대 일을 가르쳐 안 주더라고요. 안 가르쳐주고 계속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한번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그거 하던 분이 되게 안 좋아 해가지고. 또 회사 막 올라가서 난리 부리고, 날 시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밖에 내가 손이 좀 빠르고 자기 하는 거를 따라 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6개월 동안을 어깨 너머로 봤어요. 절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C11)

연구참여자 C11은 일하면서 일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인근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의 보람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거래처 사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너머며 또 이렇게 해서 아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우리 밑에 회사도 북한 여자 있어요. 밑에 회사. 그러면 그 사장님이 우리 회사 북한 여자 들어왔다 하면 나한테 알려줘요. 그 직원들한테 계속 그런대요. 일 되게 잘한다고 하면 계속 내 소리를 한대요.” (C11)

#### 나. 차별받은 경험

연구참여자 C11은 ‘나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보다, 노동자로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차별받는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조금 살짝 기분 나쁠 때 있어서 우리 사장님하고도 대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한번 이렇게 북한 사람이라고 다 막 대놓고 막, 면접 보러 오면 오는 사람한테 다 말하고… 주변 사람한테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우리 의사가 우선이지 않냐고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자유롭게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북한 출신인걸)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대놓고 폭로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내 의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이 사과하더라고요.” (C11)

자격증이 남한 사회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출신이란 점은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 경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자격증 받고 나왔는데…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터민이라고 안 받더라고요. 한의원에 가서 면접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병원에서 채용 공고 뜨면 거기다 전화하고서 또 면접도 보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는 게 다 예들러 말하거든요. 북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IV를 그러니까 정맥 주사 놓을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금방 간호학원에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빙빙 예들러서 말하는 것이 주사를 못 놓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금방 간호 학원에서 졸업한 사람이 뭐 IV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걸 좀 예들러서 말한 거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했더라면 나를 받았을 건데 왜 내가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안 받아주나 하는 생각으로. (C07)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인한 오해 역시 차별 경험을 구성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로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C04는 한

의원의 환자들이 자신을 ‘중국교포’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불편함을 털어 놓았다.

“환자 한 분이 좀 이렇게 말이 환자들도 사람마다 다 개별, 좀 이렇게 수다스러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근 금방 했는데 원장님 찾으시는데… 원장님은 10시에 오시고… 우리가 9시 반까지 와서 준비 다 세팅해 놓고 나서 먼저 핫팩 들어가고 물리치료 들어가고 침 딱 들어갈 때 원장님 딱 나오거든요. ‘원장님 조금 늦으실 것 같은데 올라갔다 한 30분 있다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했더니 막 또 왔다 갔다 하더니 막 옆에 아마 그 말이 아마 안 좋았나… 비위가 상했나 봐요. 근데 그 옆에 환자한테다가 ‘말씨가 이상해 중국 교포 같아’ 이렇게 말을… 중국 교포든 뭐든 아니 자기 환자 치료하는 데 해를 준 거 없잖아요. 제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 북한이 아니고 중국 교포 취급하니깐 기분 나쁘죠. 외국인이라는 사람 목적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좀 업신여기거나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C04)

북한이탈주민이 동료관계, 고객관계에서 차별받는 경험을 갖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존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일터에서도 기존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북한 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선입견이 그대로 행동에 반영될 때 북한이탈주민은 차별받는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 4. 직무 만족도와 근속

연구참여자 C11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장기근속 중이다. C11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직원 6명이 있는 제조업체에서 가장 근속 기간이 길고,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는 원래 알바하다가 사장님 저 취직 여기 정직원으로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니깐 안 된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던 찰나에, 그 시기에 언니가 나간 거예요. (정직원이던?) 언니가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다음에 거래처 사장님이 나를 제안을 해준 거예요. 받아라, 정직원으로 받아라. 우리 회

사에 이 분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 사장님이 정직원으로 받은 거지. 지금은 우리 회사 중에 남자분들보다는 내가 월급이 제일 높아요. 직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7년 차... 나보다 늦게 들어 오신 분들 근데 기술자지요. 근데 기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나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직급이나 급여가 더 낮아. 그래서 다른 회사 못 가요. 월급 차이가 이제는 너무 상승해서 내가 웬만한 남자 월급보다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른 회사 가면 최저임금부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C11)

C11의 목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다.

“앞으로 목표는 이 회사 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둘 지금 다 한 절반 한 60%는 인계 받았나? 사장님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도 다 회식 장소에서 선포했어요. 나한테 인계해 주겠다. 그리고 거래처에서도 나하고 거래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내가 사장이 되려고... 미래행복통장 만기 끝난 것도 아직 안 찾았고... 적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되고 나면... 신입 직원 뽑을 때... 우리 사람을 좀 뽑을 생각이예요.” (C11)

서비스 직종에서 고객과의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C06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밝혀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어떤 때가 있냐면 그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라운지 거기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객님들은 말 걸어요. 여사님 내일은 어디 고향에 가세요? 하고 그러니까 추석인데 고향에 가세요? 하면 네 38선을 넘어서 가야죠. 제가 또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죠. 이러면 아 북한 분이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시면 오셨어요? 하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전달할 때가 고객님들한테 알려줄 때가 있고 고객님들이 먼저 우리에게 문의를 하고 말을 걸어오면 우리는 또 공손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서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또 고객님들은 그 북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다는데 북한은 쌀이 얼마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서... 고객들이랑

자주 이야기하고…” (C06)

C06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자신이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고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북한이탈주민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일상에서,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직업생활의 대표적 어려움 : 언어 문제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직업생활의 어려움은 ‘언어’ 문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북한의 한국어와 남한의 한국어는 완전히 동일한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 북한의 한국어가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남한의 한국어는 외래어를 많이 차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어려움은 취업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직업 적응 과정에서,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언어의 어려움은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부터 생겨난다. C05는 직업훈련을 받으러 갔던 학원에서부터 언어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 그 직업훈련 하면 장려금 같은 걸 주더라고. 그래서 학원에 갔는데 같은 말인데 어려워요. 들으니까 지금은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C05)

언어의 어려움은 북한에 있을 때 하던 일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험이 있던 일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C06은 북에 있을 때, 양장점에서 일하면서 재봉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주민센터의 공무원을 통해 재봉 일을 소개받았는데, 재봉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으나, 북에서 쓰는 용어와 남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서 일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남한에서 쓰는 작업 용어가 전부 외래어라서, 자

신이 해당 일에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다.

“주민센터에 남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OO동의 유니폼 회사를 또 소개해 줘서 거기 가서 또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참 제 바느질을 보더니만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아 잘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자기가 잘 배워주겠으니까 나가서 세탁소라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복, 처음에 양복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양복을 했거든요. 근데… 외래어를 몽땅 다 외래어를 쓰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는데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외래어를 모르니까 사장님 목만 아프지 진짜 막 목이 아파서 막 물을 마셔가면서 나한테 알려주는데 제가 막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사장님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배우고 오겠습니다.” (C06)

“외래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들어, 여기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기 힘든거는 언어 용어 그것 때문에 용어들 때문에… 무슨 뭐더라 우리 무슨 테이블 이런 테이블 테이블이라는 거 책상이라는 거 알지 그거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막 테이블도 깨끗하게 먼지 청결하게 해 주세요. 테이블이 뭐지? 이렇게 되고 되게 사소한 건데, 그다음에 그 핸드타월 그래서 무슨 종이 휴지 하면 되는 걸 핸드타월 이러니까 이게 참 언어가 그렇죠.” (C06)

“일하면서 느낀 게 제일 처음에 딱 회사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회사가 한국은 회사가 적응하기 만만치 않아요. 엄청 힘든데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언어 장애예요. 제일 처음에 언어 장애가. 근데 다행인 건 뭐 있는가 하면은요. 말은 통하잖아요. 조금 높낮이가 좀 차 있고 억양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우리가 말하면 알아는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말이 좀 빠르고 톤이 높다 뿐이지 (사투리죠) 톤이 높고 조금 말이 빠르잖아요… (C10)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외래어가 많고, 북한에서 쓰던 말투 또는 억양이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게는 차별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말투 또는 억양이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 말투 또는

역양으로 인한 갈등 또는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서비스업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이른바 “공격적인 어투”로 여겨질 수 있는 말투가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한다.

“말투… 공격적인 어투,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 업종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리스크 이게 말 한마디에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리스크인데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저도 혼선이 되긴 하더라고요.” (B02)

북한이탈주민의 이른바 “사투리와 역양”을 다양성의 한 지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경상도 사투리와 역양, 전라도 사투리와 역양 등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남한 출신 동료 사이에서 사투리와 역양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독 북한 출신에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직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6. 일의 의미

### 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

연구참여자들은 일의 의미를 생활을 위한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그제 사람들이 일할 생각 안 했거든요. 주변에 다 수급자로 있다고 하지 같이 나온 사람들이 뭐 고생하면서 나가서 일할 필요 있는가 하고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에서 수급비나 받으면 놀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일해야지… 사람이 정신이 몇 달 한 3개월 되니까 막 미칠 것 같고 답답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집에도 저 혼자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막 자살 생각도 나더라고요. 막 그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도 치료도 받고 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수급비 공짜로 받는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해야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데... 저는 한국에 진짜 홀몸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C07)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업을 이어나가며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C05는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직종에 지원’하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해왔다. 북한에 있을 때, 배정받는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지금 직장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받는 임금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었어요.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지원을 한 거지 거기서 하는 업무가 저 일은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거지 안 해봤던 일을 계속 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거지.” (C05)

#### 나. 기초생활수급비와 취업 사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마다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하여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른바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수급비 그래서 90만 원 주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거 타고... 그러다가 한 몇 달밖에 안 탔습니다. 왜? 나는 오직 일하자는 목적이니깐. 저는 그래서 다리가 좀 점점점점 걷기 시작하고 능히 일할 수 있다 하고 똥을 때 그다음에 취직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급비 타면서 알바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왜 그러냐 했는데... 아니 나는 그제 수급비 타는 것보다 90만 원보다 회사 나가면 170만 원 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고 또 그런 배려가 있잖아요. 미래 행복 통장, 진짜 미래행복 통장... 내가 일하고 또 나라에서 또 이렇게 얼마 보태주고 이러니까... (C06)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있었다. 특히, 수급자로 계속 살 수 없으며, 수급비를 받아서는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경제적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장의 수급비보다는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일하면서 얻는 만족

C06은 현재 청소회사에서 미화원으로 6년째 근무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청소노동자는 하층의 직업으로 인식되는데,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일 하바닥’(밑바닥)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으나, 고객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청소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청소가 근데 우리 북한에서도 청소를 하면 제일 하바닥 제일 하직업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북한에 있을 때) 뭐 한 상점 책임자 점장까지 하던 게 내가 무슨 청소하러 여기 왔나 이런 각오로 사실은… 그런데, 오래 일하다보니깐…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단기 연수 기간에 청소할 때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섰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정말 그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돌아서고 이래 됐는데 고객들이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솔직히 고객님들은… 대기업 000사람이라면 좀 높은 직계의 급수의 고객님들이잖아. 북한식으로 하면, ‘토대가 좋은 사람’… 근데 그분들이 머리 숙여서 우리에게 인사할 때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거 내 직업이 참 좋네… 근데 어떤 게 또 마음에 와닿았나면 우리 회사의 사명감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함을 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청결한 작업에 작업장에서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서비스고 최대의 그 임무고 그리고 ‘청소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 말이 참 정말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소해놓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고객들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공로잖아요. (C06)

### 제3절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보통 이 경제적 자립이란 북한이탈주민 성인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창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자영업은 연구나 정책 차원에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혼동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창업 시 법적 절차를 거쳐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참가율이 63.8%였는데, 이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7.8%였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탈북민만 놓고 봤을 때 100명 중 17,18명은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강경애, 2025).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창업’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이뤄져 온 경향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생산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준비 과정에서는 창업자금의 부족, 아이템 실현의 어려움, 일반인들과의 소통,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드러났다(이준호 외, 2017). 그리고 창업 의도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치체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아성취 욕구와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노규덕 외, 2021).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내부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강경애, 2025). 또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의 성공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들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네트워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창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윤보성 외, 2019). 또한 현재까지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이나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분석한 연구들도 산

출되었다(엄철현 외, 2024).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 중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창업의 과정에서부터 자영업의 운영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 등과 관련한 경험들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카페 창업 및 운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D02씨는 카페 창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며, F01씨는 카페 창업을 하였으나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게를 접은 경험이 있다. 이 두 경험을 살펴보면서 북한이탈주민 창업 경험과 자영업 운영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창업의 동기와 준비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지. 장애인이나 요양보호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솔직히 돈이 내가 생각했던 그 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어야만이 고향에 돈을 보내줘야 되고 제 고향에 아들, 큰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내미가.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내가 아 내가 자업을 해야만이 빨리 내 사업을 해야만이 돈을 내가 생각한, 내가 목적인 만큼 벌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만뒀던 거 같아요.” (D02)

D02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식당 일을 꽤 오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식당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약 1년 반 정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을 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으로는 남한살이와 북한 송금 모두 하기는 빠듯한 상황이었다. 월급을 타는 입장으로는 매달 받는 돈의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제는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녀는 카페를 창업하였다고 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아저씨가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한 그릇에 원가가 얼마며 얼마 떨어진다 좀 배우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장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살짝 좀 느꼈다고 봐야 될까요? 또

장사 개념은 또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참 저도 잘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번 끝장 날 때까지 해보자는 이 생각이 지 내가 돈을 많이 얼마큼 번다는 그런 계산은 못 해봤어요. 왜 그건 모르잖아. 내가 이만큼 벌고 싶어도 세상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래도 뭔가 뒤따르겠지 하는 생각 그런 걸 가지고 가죠.” (D02)

D02씨가 창업을 결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당업을 하던 남편 옆에서 일하면서 사업의 노하우를 배웠기에 어느 정도 자신도 노하우를 익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따로 참가하거나 외부에서 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과 함께 직접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거나 절차 등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년 그 전해 때부터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뭐 나만의 어떤 식당을 좀 요식업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치킨집을 해볼까 뭘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같이 있었던 거 그렇게 하다가 카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카페 알바 경험은 없었는데 카페를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F01)

F01씨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면서 카페를 창업하였다. 이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꽤 돈을 벌었지만 보험설계사 일로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전에 요식업을 했던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카페를 창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권리금이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 권리금은 그러려니 해요. 그 시설들이 1년밖에 안 된 거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바닥 권리금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상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쪽으로 아예 저희가 문외한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좀 많이 믿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전까지 되게 잘 챙겨주는 모습만 보여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

리를 설마 속이겠어, 그냥 그런 생각이었고 오히려 저는 더 좀 여유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비싼 권리금을 주면서도 우리가 되게 도움받는 거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F01)

창업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F01씨가 카페를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한 출신 지인이 카페 관련 자리를 소개시켜 줬기 때문이었다. F01씨도 매우 신뢰하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큰 의심 없이 수락했고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카페 인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데에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월급과 같이 고정된 수입이 아니라 수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동기였다. 이들은 이미 남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밀천을 마련한 상태이기도 했다. 즉, 남한에 와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회사에서의 고정 수입보다도 자기 사업을 꾸려 수입을 늘리고 자기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창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창업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2. 가게 운영의 구체적 사례와 어려움

“생각보다 일 시작한 지 보름 만에인가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 기계가 되면 1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는 기계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운이 안 좋게 해도 그때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나가고 또 기계 한 번 고치는 데도 몇십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라는 게 생각보다 그 커피 찌꺼기가 기름이 많아서 배관도 자주 막히는 거예요. 그 배관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뚫어줘야 되고 뭐 손 가는 데가 한 두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딱 이렇게 서서 주문 들어오면 커피만 내려주고 그냥 그걸 상상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만능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대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뭐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나

가는 돈이 진짜 많아요.” (F01)

F01씨는 이전에 자영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를 인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업종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사업의 노하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당면한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출과 이윤을 계산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딱 1년 만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위약금이 발생 안 하는 시기가 1년이더라고요. 그 1년 안에 프랜차이즈를 접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1년 만에 접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접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접고.” (F01)

F01씨는 카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초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자신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카페를 접을지 계속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1년이 되는 시점에 카페를 접으면 그래도 큰 손해는 입지 않겠다고 판단한 뒤 1년 만에 카페를 그만두었다.

한편, D02씨는 꽤 규모가 큰 카페를 운영하였다. 카페가 크기 때문에, 상권이나 예상 가능한 방문객들에게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연령층이 있는 동네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상들을 이야기했다. 비록 현재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 상황에서 매출이 좋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초기 투자한 비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향후 이 카페를 자신이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한 권리금 보증금 그다음에 설비 다 모든 간판 다 교체한 것이, 딱 해서 한 1억 한 6천 7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보증금 같은 거는 아니지 내가 계약이 끝나면 만료되면 제가 찾은 돈이지만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설비

투자한 돈들은 제가 그 계약 내에 뽑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 지금 한 1년이 됐는데 크게 이윤이 없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 좀 벌어지겠죠.” (D02)

앞서 언급한 대로, D02씨는 이전에 남편과 함께 요식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을 확실하게 가늠하고 동시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이제는 자신이 ‘사업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 현재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요식업에 대해서도 구상할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가려고 하고 있었다.

### 3. 창업 과정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직업에서 실패나 자격증에서 실패나 이것도 되게 큰 실패로 다가오지만 창업 사업에서의 실패는 진짜 사람들이 왜 사업 실패 때문에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창업에서만은 어딘가에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에 물어볼 때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런 금액을 이제 제시받았는데 괜찮네라고 한 번쯤이라도 주변에 확인을 했으면.” (F01)

F01씨는 카페 창업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네트워크로 알게 된 지인을 믿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창업을 하거나 창업의 노하우를 알고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남한 출신 지인들이 중심인데, 그럴 경우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는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창업할 때는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자본을 대주셔서 지고 했고. 저쪽 지금 해결하는 거를 지금 하나센터를 통해서 제가 투자 받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하나센터에서 컨설팅 대표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서

가지고 그 컨설팅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보증재단에다가 초기 창업자로 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좀 창업 비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대출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받는 것보다 이자율이 조금 싸고) 그렇죠. 보증재단을 거치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을 거치면 일반 대출보다 조금 싸죠. 그리고 또 그 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으면 은행들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어야만이 대출을 해주죠.” (D02)

창업 자체가 초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에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도 창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D02씨는 남편과 자신이 모아둔 돈과 함께 하나센터에 상담을 받아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센터에서 초기 창업자로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진로와 일 경험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남한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이후 자립을 해야 하는 독특한 세대로 규정된다.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들이 향후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들은 이들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변수로 하여 이들이 사회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평가해왔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교육을 발판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주체로 잘 안착할 수 있느냐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북한이탈주민은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 학생들의 입시제도 내 경쟁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다. 이러한 특수한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이나 학업, 향후 진로와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들이 주로 이뤄졌다. 그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에 성공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주요한 7가지 요인으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공인영어성적표의 활용',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 '부족한 인적자본 및 문화자본 형성의 장으로서의 대학 경험', '변칙적 배려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 태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역경 극복을 강점으로 승화',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획득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북한이탈주민이기에 가능한 취업기관 공략'이라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노은희·오인수, 2016). 또한, 대졸구직자 혹은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우 진로 선택에 있어서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남한 대학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취업준비과정에서 탈북민임을 공개하는 것의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안성식·양준영, 2022).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북한배경청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하여 이 개념 속에 제3국출생 청년을 포함시켜, 실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녀들이 제3국출생청년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관련 정책들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이우태 외, 2022).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심층인터뷰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대학 생활에서부터 진로 고민, 구직 활동, 취업과 직장생활 등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대학생, 구직자, 현재 취업한 사람들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 경험에서 중요한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경험들이 갖는 의미들을 해석한다.

## 1. 대학 생활과 진로 (1) : 교육 자본 혜택의 명암과 현실적 갈등 요소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중에는 남한에 와서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에

편입하여 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남한 학생들과 달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 교육은 대학의 서열화와 맞물려서 치열한 경쟁 구조하에 놓여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다른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진학의 문을 넓혀주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소위 교육 기회에 있어서 ‘혜택’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 특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단순히 학업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학력 취득이 향후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는 교육 자본으로 인식된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특별 전형을 통해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들은 자신이 어떤 학교와 전공에 지원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와 맞닿아 있으며, 향후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총 5개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붙었는데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누구 얘기 친구들은 아닐 때 누구도 있었고 통상을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통상에 대한 지식이 배경 지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학벌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괜찮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폭이 넓은 어문학을 선택을 했죠. 어문학은 폭이 넓으니 내가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더라고요.” (G02)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적게 하면서 제가 제 실력에서 담임 선생님 제 실력을 아니까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할 수 있는 학과로 가고 싶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뽑아준 게 아까 수의학과 쳐내고 기계공학과 쳐내고 경영학과랑 영어교육학과였어요. 영어교육학과를 저는 가고 싶었는데 선택은 사실 B대 영어교육학과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 네임 밸류 때문에 A대 가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때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대를 선택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하기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제 제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줬으니까 담임 선생님은 어느 정도 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E02)

G02의 경우 중국에서 살던 경험이 있어서 중어중문학과를 진학했고, 5개 중 중문과의 대학이 국내 대학 순위 중에서 높은 학교였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E02도 담임 선생님과 진학을 상담하면서 합격한 대학 중 어느 곳을 갈지 고민할 때 ‘학교 네임 벨류’라는 인지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교육 자본’이 ‘학교 순위’와 맞물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 전형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소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점을 받거나 학내 활동을 해야 될 때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만으로 드러내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자원들, 가령 사회자본이나 소통하거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활동 등 전방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그때에 급급해서 살았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을 일반인 친구들을 보니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업 관련돼가지고 학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일단 (근데 일반 자꾸 일반이라고 해서 좀 그러시겠는데 남한 출신 애들도 동아리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쉬잖아요.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상위권 대학 애들은 자기 관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G02)

G02씨는 자신이 살다온 경험이 있기에 중국어에 자신이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 만난 중어중문학과 친구들도 실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어 구사만으로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하며 전공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간 ‘상위권 대학’에서 남한 출신 학생들이 학회나 여러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신은 학점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어디 가서 한국 사람 만나서 이런 대학교를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 잘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나는 아닌데 속으로는 나는 그냥 특례입

학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그거 한 가지랑, 수업 들으면서 어려웠던 게 나중에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나도 했어도 좀 떳떳하지 못하겠더라는 생각을.” (E03)

E03씨는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부를 잘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특례입학’으로 들어갔음이 ‘떳떳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은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제도적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계발해나가는 동기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온 남한 출신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예를 들어서 박사님처럼 대한민국에서 쪽 자라신 분들이랑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근데 실제로 안 같아요. 능력 자체가 달라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쪽 다녀보면 능력 자체가 다른 걸 인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E02)

E02씨도 고등학교 때는 일단 서열화된 한국 대학 구조에서 높은 대학으로 일단 선택해서 들어왔지만, 학교를 다닐수록 북한 출신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남한 출신 학생들과 다르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는 이것을 ‘능력 자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입시를 위한 학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활동과 자원들, 예컨대 인적 차원의 사회자본이나 정보 접근성과 습득 가능성 등과 얽여 있는 여러 요인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E02는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한계인 것처럼 인식한다. 그런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자기 계발이 더 강조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의 상황도 개인화된 방식의 자기 관리로서 해결해야 된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 2. 대학 생활과 진로 (2) :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 가치관에 대한 고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상당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남한에 와서 정규 교육을 받고 또래 친구들과 사귀면서, 사투리도 교정하여 거의 쓰지 않고 한국의 청년 문화 북한 출신이라는 증표(marker)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이후 대학생으로 생활하면서 적성과 진로를 고민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지 새롭게 고민하기도 한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한반도를 떠나 해외에 나갔을 때라는 점이다. 해외에 나갔을 때 비로소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자신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대학원은 무조건 외국 갈 거다. 외국에 가서 공부할 거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특별 전형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때 어디 학교 다니는 A대라고 했을 때는 너무 높게 보잖아요. 하지만 제 실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A대 다닌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자신 없게 항상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외국의 대학원을 가면 그건 전형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경쟁 똑같이 경쟁해서 가는 거니까 졸업하면 당당하게 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여기 가야겠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 어떤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 대학교 때까지 항상 내 신분이 숨기다 보니까 자신이 늘 없어요. 자기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못 느꼈던 고향후에서는 다 얘기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노스 코리아라고?) 아니요. 노스

코리아는 얘기는 안 하고 물어 나온 거니까 근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코리아라 하나까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뭐 나이 왜 가냐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너무 편한.” (E02)

E02씨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도 북한 출신임을 알 수 없었기에,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지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신분을 숨기는 듯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화할 수 있었던 시점이 바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나갔을 때였다. 호주에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답했을 때, 상대는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치 자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면 호주에서는 똑같이 행동했어도 자신이 거짓말한 게 없기에 편안한 감정을 느꼈다. 즉, 같은 행동을 해도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바로 한반도를 벗어났을 때 그 이분법과 위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분단 체제의 특성인 ‘북한’, ‘남한’의 이분법에 기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청년으로서 느끼는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경쟁 중심의 체제와 문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근데 미국 갔을 때 느꼈던 거는 한국은 진짜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고 그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도 항상 제가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시선을 생각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미네소타에 갔을 때는 그때 가보니까 차도 다 막 거의 막 망가져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것 같아서 한국 돌아가서도 너무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G03)

“한국 들어올 때쯤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그전에는 되게 돈을 많이

별어야 돼 뭐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미국 갔다가 졸업하면 들어올 때는 돈보다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 세상 만들어 놓고 그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막 행복하게 살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경쟁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E02)

G03씨는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한국이 경쟁이 심한 사회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이나 비교로 자유롭지 않은 사회였다는 것을 비교 관점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경쟁 체제와 문화 속에서 위계화되어 있고, 인정을 받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를 거리 두려고 노력했다. E02씨 역시 자본주의 한복판인 미국 사회를 경험했을 때, 오히려 한국이 물질주의 문화나 경쟁이 더 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비춰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려면 이러한 경쟁에서 비껴갈 수 없고 돈을 벌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 3. 취업준비 : 스펙과 구직활동, 전문직을 위한 대학원 진학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세대는 소위 ‘취준생’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 경쟁이 매우 심한 구도에서 공통적으로 직장을 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 노동시장이 심화된 구조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압박이 강하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는 취업준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스펙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도 매우 광범위하다. 기본적으로 학점, 영어 성적, 해외 연수, 인턴 경험, 자격증, 학내외 활동 등이 들어간다. 이는 대학생으로서 학교 내 생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시간을 쓰고 성취해야 하는 것들이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도 이런 한국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생 때부터 준비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청년으로서 이 취업준비

단계에서 드는 생각이나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제가 본 사람들은 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수업 듣는 데 급급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여가에 알바를 하든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친구들 당연히 존중하고 멋있고 존경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알바도 하고 공부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 외의 여가를 그러니까 여가에, 스펙을 쌓는데 투자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학회라든가 요즘 들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것 같고.” (G02)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국가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고,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받으며 생활한다. 그러나 그 생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G02씨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항상 해왔다. 그러면서 취직 준비를 할 시기가 되자, 자신은 학점을 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바쁘는데,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 친구들은 소위 ‘스펙’을 쌓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비교하게 된 것이다. 학회 참여나 공모전 등은 스펙을 쌓는 데 중요한 활동임에도 그것을 따로 시간을 내어 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남한 출신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한국, 여러 기관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청년들도 상당수가 국내외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또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따는 것을 활용한다.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실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간다.

“강의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100만 원 정도 상당의 남북하나 재단인가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세 과목 정도 (뭐 관련된 거예요?) 중국어도 되고, 컴활도 되고, 일반적인 직업 훈련 관련된 네 그런 것도 지원된다고 하길래 지원해 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잘했네요) 그래도 그런 거 잘 또 이렇게 하니까. 요건을 맞춰놓으면 컴활 따고 뭐 등등. 스펙 맞추면서요, 자소서 써요.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다음에 더 컴활이랑 6급 딴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소서랑 준비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게 계획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G02)

구직 활동을 할 때는 보통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남한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실제로 하나센터 취업상담사가 관련 일자리를 연계해주기도 한다.

“남북하나재단 그런 데서도 보고, 아니면 센터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있으니 까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보세요 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봤고 전에도 그런 거 부탁드려서 받아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에다가 부탁해서?) 그 센터 분한테 뭐 올해는 여기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받아 봤던 엑셀 파일로 받아봤었나.” (G02)

G02씨는 주변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은 각자 스펙이나 자소서 등을 준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북하나재단이나 일전에 관련 프로그램에서 만난 선생님 등을 컨택하면서 정보들도 습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나센터 취업상담사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주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찾아보는 일자리보다 그 범위가 좁다. 그렇지만 혹시 자신이 찾지 못한 영역에서 찾아줄 수도 있기에 그녀는 하나센터 취업상담사와도 관계를 지속하면서 취직 관련 정보도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구직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에서 계속 살지 고민을 한 번쯤은 토로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원을 다니면서 진로를 모색해볼지도 고민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을 고민하는 매우 실질적인 목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로스쿨과 같이 시험을 보고 가야되는 길을 생각하기도 한다.

“제가 진짜 특이하게 롤 모델이 있었다기보다는 북한에서 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껴지고 뭔가 그 어린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은연중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뭘 하려고 해도 여기서는 다 돈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직업을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해도 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한 번 재판을 본 적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오다 보니까 뭔가 판사라는 그 워딩을 들었을 때 뭔가 판사면 조금 공정한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그냥 그러다가 뭔가 정의랑 조금 가깝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무조건 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판사는 그냥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뭔가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법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도전 중이에요.” (G03)

G03씨는 북한에서 부모님이 이혼할 때 재판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의 공정하지 못한 사회 풍토 속에서 그래도 법을 다루는 판사를 보면서 자신도 판사가 되고 싶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남한에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고 학업도 성실하게 수행하여 서울 소재 좋은 대학으로 진학했다. 전공도 로스쿨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과학대학 학부의 전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G04씨도 대학교 4학년이 되어 로스쿨 준비를 시작했다. 그도 G03씨와 비슷하게 북한에서 부모님이 겪는 고초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힘이 있었던 법조인에 대해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에 와서 대학에 들어온 뒤 로스쿨을 진학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는 이제 한국

에서 살아간다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직업으로 법조인을 다시 생각한 것이다.

“부모님들도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안전원들하고 마찰이 많고 근데 누가 봐도 막 불법적인 걸 너무 많이 하면서 그냥 돈 뜯어내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거죠. 부모님들의 그 모습에서 근데 재네들을 이길 수 있는 게 검사였고 경찰을 이기는 게 검사였어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나 무조건 검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재네 무조건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릴 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그 꿈을 꿔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엄청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그리고 잘 했고. 계속 학교에서도 1등만 하고 하다 보니까. …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회사 취직을 목적으로 그 삶과 진로의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나의 삶의 방식을 찾아서 그냥 나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독특한 방식과 나만의 길을 가면서 있어서도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뭔가 적응을 잘하는 방법은 법을 아는 거. 그래서 그 법을 알되 거기에 자격증까지 있으면 누구도 뭔가 나의 삶을 이렇건 저렇건 판단할 수가 없게끔 하는 게 법조인이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법조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욕심만 버린다면 할 일이 충분히 많은 자격증이기도 하고 정년이 없으니까.” (G04)

북한이탈주민 중에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G03씨는 로스쿨을 준비하던 북한이탈주민 선배들 중에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자신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면서 남한 출신 학생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워낙 힘들기도 하고 그 시험 자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무서

왔고 제일 무서웠던 거는 또 주변 친구 C대 친구들은 다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개네는 원하면 또 열심히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도전하는 걸 모두가 알 텐데 그거를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 제가 너무 그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시선이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그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고. 붙는 것 자체가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로스쿨 3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변사 5번 안에 못 붙으면 끝나는 건데 저는 항상 그래도 미래를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탈북민 선배들 중에서 변호사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었는데 그 로스쿨 간 사람이 거의 없고. 가서 오탈(다섯번 탈락)하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G03)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기성세대들 중에는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중년 전후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남한 교육시스템을 거쳐서 경쟁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경우와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또한 현재 청년 세대를 거쳐 직장을 잡은 선배들을 봤을 때,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현재 드물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같이 상담해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조금 더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연결점들을 찾아서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해가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일 경험: 인턴과 직장 생활

현재 대학생들에게 인턴 경험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취직해서 기업에 입사하기 전, 회사 생활이 어떤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 경험이기도 하다. 특히,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은 스펙이기도 하지만 그 인턴 생활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요즘은 인턴이 금턴이라고 해서 네 인턴 하는 게 엄청 어려워져서 인턴을 함

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가서 월급 싸게 받고 인턴을 해주는 거 뭐 당연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이 회계법인이 이렇게 큰 기업 같은 곳에서는 인턴을 채용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채용을 한다고 해도 거의 회사 취직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스펙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인턴은 금턴이다라는 말이 대학생들 속에서 유명하잖아요.” (G04)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인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는데, 이는 기업에서 낸 광고를 보고 간 경우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센터에서 이들을 정기적으로 뽑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었다. 위에서 G02가 언급했듯이 현재 기업들이 운영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하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 프로그램은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일 경험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교 들어갈 때 예비대학교(프로그램)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뭐 준비하고 경험담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센터인데 그 센터 센터장님께서 해볼 생각이 지원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하셔가지고 지원해 볼게요. 인턴 너무 좋죠. 경험하면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뽑는 그런 거였어요.” (G02)

“들어갈 때 이 센터장님도 사람을 선발하는 데 엄청 엄청 신중한 게 들어가서 한 번 물을 흐려놓으면 그다음부터 신뢰가 깨질까 봐 들어가서 정말 잘하길 바라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만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잘해줘라 그래야 나중에 후배들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들어간 거죠.” (G04)

인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미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자신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며 그것이 자신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도 인턴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면서 자신의 인턴 생활을 반추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팀원들이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중간중간 같이 밥 먹을 그러니까 밥 안 먹는 때도 있었지만 밥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공기업 들어가면 이직할 때 사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랙이 있다 이렇게) 보통 내가 NGO 들어가면 다음에도 NGO 이런 것처럼 살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첫 직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전 (복수전공)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들이 많이 와 닿았고 그분들이 다녔던 회사들이 얘기도 해 주셨을 거잖아요. 친구 얘기도 해 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 요즘은 취업하면 되게 다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숙제 하나 끝낸 느낌이었겠네요) 네 좀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을 많이 주기는. 뭔가 사회생활을 살짝 맛본 그 기분이어서 좀 좋았어요.” (G02)

G02씨는 인턴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것보다도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대학생들에게 일 경험은 실력을 높인다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은 남한에서 주변 가족이나 친지들 등이 없기에 주변에 회사 생활을 하는 지인들이 드문 경우가 많아 사무직 기업에 취직했을 때 어떤 틀로 살아갈지 막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인턴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선발하여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보다 사회자본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인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겪게 되는 상황들을 먼저 경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쓰던 사투리를 이젠 쓰지 않으며,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대학교 생활할 때부터 굳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매우 사소한 이슈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보통 단어가 다를 때 그럴 때 에피소드. 카페 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지금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 때문에 직원이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안 썼고. 알고는 있었는데 뭐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E01)

E01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굳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힐 이유도 없고 그것을 스스로도 크게 인지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매우 작은 업무 처리를 하다가 남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나올 경우에 상대방은 그것에 의아함을 느꼈고, 그러다 보면 작업장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E01씨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이 밝혀졌을 때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 뒤 일을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위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군대가 빠지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이와, 민방위로 가든가 나이대가 다 있어 이 친구들은 무조건 그때 시간을 받고 예비군 가야 돼요. 나는 예비군을 안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데서 또 파워가 또 나오니까. 아 근데 형 우리 나서 더 묻지 마. 뭐 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얘기도 안 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있다 보니까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근데 저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E03)

북한이탈주민 청년들 중 남성들에게는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자신들이 남한 출신이 아님을 드러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E03씨는 남성들이 중심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장

근무를 하면서 팀으로 움직이는 업무 특성상 남한 출신 남성들과 대화가 많지만, 그는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설사 자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업장에서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않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 제5절 소 결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경험을 현재 노동시장 지위 및 세대에 따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청년세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언제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선택이 광범위하게 고려되지만, 입남을 한 시기의 연령과 가족 상황,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취업하는 경로와 경험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었다. 하나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주변 지인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취업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터에서는 자신의 업무 능력보다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 북한 말투와 억양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외래어가 많은 현실에서 적응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동료관계 및 고객관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경우 '다름에 익숙해지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일터에서 남한출신 동료들이 북한출신 동료들을 자주 접하지 못한 경우 상호 이해의 정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향후 앞으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은 영역의 일터로 진입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하

는 것이 익숙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전의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모은 돈과 주위의 도움을 얻어 자본을 마련하여 창업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데에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수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큰 동기였다. 그러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며, 이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남한 출신 지인들이 중심인데, 그럴 경우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가령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들에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혜택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이 없을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웠기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창업자금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 후 가게 운영과 관련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남한 청년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금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위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 진학 시 북한이탈주민 특별 전형은 교육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할수록 학점, 영어, 스펙, 사회자본 등을 관리하는 데 남한 학생들과의 차이를 다시금 실감하게도 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구직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대학원 진학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대학원을 고민하는 매우 실질적 목적으로 MBA, 로스쿨과 같은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에 아직 많지 않지만 고학력 전문직을 지향하고 성취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인턴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대

학생들에게 인턴 경험은 실력을 높인다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인턴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선발하여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남한 출신보다 사회자본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인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제 5 장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동생애사적 접근과 분석

#### 제1절 들어가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노동’의 의미는 그들이 출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북한, 북한을 떠나 다시금 정주하였던 제3국,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분절과 연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제3국, 남한 이 세 국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각 국가마다 다른 가족-시장-국가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노동의 기회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이주와 정주를 하며 노동의 기회 구조, 노동 문화와 규율이 다른 것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맞춰서 생존을 위해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주체로 각 사회에 편입되어 적응해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간에도 성별, 세대, 탈북 동기, 탈북 시기 등에 따라 경제적인 주체화 양상과 노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데 매우 이질적인 양상들을 보인다. 가령,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에서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탈북 이후 상당수 중국에서 한족 혹은 조선족 가족의 영역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다가 남한으로 온 경우들이 많다. 이럴 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노동은 단순히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재생산 노동이 어떻게 이들의 돈 벌기 및 일하기와 연관되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꾸려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북한에서부터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고 그것에 부여한 의미와 효과들이 무엇이었는지 생애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4장에서는 남한의 노동시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형태와 근속, 이직, 취업 전후의 상황 등에 따라 분류하여 일하기와 노동경험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노동시장에서 겪은 일하기와 노동경험의 특징들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하여 이들이 북한, 제3국, 남한을 거쳐 오면서 어떻게 노동의 의미들을 구성해왔는지 주요 사례들을 선별하여 심도 있게 해석해보고자 한다. 노동생애사적으로 접근을 통해, 이들이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 ‘일’이라는 것과 연관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 왔는지 시공간적 차원에서 연속과 단절의 지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인 어머니, 딸, 아내, 아들, 남편 등 거주국의 변화에 따른 지위와 정체성이 함께 변화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의 형태와 그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도 함께 해석한다.

## 제2절 노동생애사 연구 방법

### 1. 구술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 방법은 역사학, 문학 분야의 학자들이 구술사를 수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재구성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서사를 해석한다. 이후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구술사 자료는 경험과 서사를 구성하는 ‘생애 이야기(life story)’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발전

시켰다. 이처럼 다양한 분과 학문 간 교류와 방법론적 확장으로 현재 구술 생애사 연구는 개인과 사회, 과거와 현재, 시간성과 공간성, 행위성과 권력 구조 등의 관계를 고려하며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구술사 연구(oral history)는 1980년대 민중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는 식민과 탈식민, 전쟁과 분단, 독재와 민주화를 겪어내고 있었으며 그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은 이러한 역사적 궤적에서 면면히 그 상흔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비전향 장기수,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항쟁 등을 겪은 사람들은 당시의 역사에서 배제된 진실들을 그 스스로 온몸으로 직접 살아내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험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구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구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주제들이 발굴되면서 생애사 차원에서 구술 자료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산출되었다. 식민, 분단, 독재와 같은 거시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굵직한 정치사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 문화사, 노동사, 일상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생애사 연구 방법은 거시사와 미시사를 연결하는 방법론으로 나아갔다(김귀옥, 2016).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와 역사를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기점을 만들었다.

이제는 역사나 문학과 같은 분과 학문을 넘어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학제 간 연구에서 구술생애사로 접근한 경험 연구들이 풍부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구술생애사 방법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여성주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생애사 연구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이재경·윤택림·이나영, 2012). 여성들의 구술 자료는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들의 경험을 보여주는 증언 자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후 이는 단순히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젠더 경험의 구체

성에 접근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바로 구술하고 있는 현재에서 자기 역사의 주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구술되는 자료의 수행성을 성찰하면서, 여성들의 구술 행위가 증언의 자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가 수행되면서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해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까지 그 의의를 만들어갔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생애사 자료들은 비단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서술이 아니며 그 생애사가 발화되고 구성되고 있는 사회 규범과 구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의 동인과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회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은 심층 인터뷰를 넘어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써 양적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 속 개인들의 경험, 의식과 정체성, 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대한 깊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애사는 구술생애사 자료가 지니는 체험에 대한 사실성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물로서의 서사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개인의 행위성과 사회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었다(이희영, 2005). 이러한 인식하에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애사 연구는 주로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면서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를 섬세하게 분석하는 데 기여했다.

## 2. 노동생애사 연구

노동자 생애사적 접근을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 노동생애사 방법을 수행하여 성과를 낸 것은 성공회대 노동사연구팀이 1960년대 이후 한국노동자의 일 경험, 생활세계와 정체성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노동생애사 방법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종구 외, 2005; 2006). 이후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장지연 외, 2009)는 노동자의 생애주기 및 생애사를 다루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고용 기회구조와 근로 문화,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일

의 의미와 경제적 생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생애사 연구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은 구술 생애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사 연구뿐만 아니라 노동 사회학 및 문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성과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어 왔다. 신경아(2011)는 중·고령자의 근로생애사를 연구하면서 한국 산업화 세대의 남성노동자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 가족, 개인의 삶이라는 세 영역이 교차되어 구성되는 것과 달리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일 중심성이 높아 장시간 노동과 직장 중심으로 자기를 구성했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산업화 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젠더화된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영역이 넘나들면서 구성되는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 경험(김은정, 2012), 1960년대 전후 여성들의 일과 가족 경계와 중첩(김혜경, 2007; 이정은, 2024), 강화지역 생산 노동자 여성들의 삶(박현정, 2020) 등이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르러 세대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동경험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연구들(김영·황정미, 2013; 류우선, 2021)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노동생애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즉 경계를 넘어 이동한 노동자들의 노동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국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 국가를 넘나들면서 겪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 간극들을 보여주면서 개인적 삶을 꾸려간다. 이들의 노동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모국에서부터 현재 이주국에서 노동을 하기까지의 이동과 정주의 과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과 이를 이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적 연구 중에서 생애사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이들의 일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이 안에서 계급, 국적, 계급, 인종 등이 교차하면서 구성되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다룬다. 대표적으로, 파독 한인 광산 노동자와 파독 간호사의 이주와 노동 경험(이효선·김혜진, 2014; 양영자, 2013; 2014), 미국

한인이주노인의 노동생애사(주은선, 202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효선, 2010)이나 여성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유은주, 2010) 등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 3. 북한이탈주민 생애사 기존 연구 검토

북한을 떠나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한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국민(시민)이 된다. 탈북민/탈북자라는 용어로 통칭되면서 이들은 냉전 시대에는 ‘귀순용사’로, 1990년대는 ‘북한동포’로 불리다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북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자들이 주제들을 발굴하고 설문 조사, 통계, 심층 인터뷰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문들이 산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정주하기까지 그들의 삶을 심층적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들은 생애사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살아온 이주민을 포함해 그 사회의 소수자와 관련한 문제들은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그들이 현재의 삶을 시공간적 확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아직까지 남한 사회에서 대상화 혹은 타자화되어 있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당면한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관점과 당사자의 입장을 그들의 목소리로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들에서는 심층 면접의 여러 방식들 중에서 생애사적 접근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들과 청년들이 많다. 왜 그럴까? 젠더와 세대는 왜 북한을 떠나야 했는지 그 동기와 과정,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이동하는 여정, 남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지 살펴볼 때 그 차이를 낳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북한이탈주

민 여성들의 모성과 어머니 노릇의 특징,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 가족 관계 안에서 생계부양과 돌봄을 어떻게 중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북한, 제3국, 남한을 거쳐 겪게 되는 문화의 차이들과 차별들에 대해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각 국가 및 지역에서의 젠더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성을 조율해나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이희영, 2012; 김성경, 2017; 박소연, 2017; 이지연, 2018; 송현진·조현정, 2021).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탈북의 과정에서 가족을 형성 및 재구성하는 것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별화된 노동을 수행하면서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해왔으나 이러한 젠더화된 경험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주목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젠더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중요한 지점이며, 이것을 드러내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구술생애사가 중요하게 활용된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생애사 연구 중 청년에 대한 논문들은 주로 이들의 남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생애사 연구들은 이들이 북한에서 남한에 왔을 때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의 적응 과정, 교우 관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및 대학 생활, 진로 적응과 일자리를 잡는 시기 등 인생의 중요한 국면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다(방진희, 2017; 이윤정, 2020; 이승엽·김동주·이영광, 2022).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생애 연구는 주로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북한에서 출생하였지만 남한에 와서 새롭게 교육, 진로, 근로경험 등을 겪게 될 때 여기에 이들의 적응 양상이나 자기 정체성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에서 노동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도 여성이나 청년들의 생애를 다루면서 당연히 일 경험이나 진로, 경제활동의 의미 등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노동'을 중심에 놓고 생애사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형에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들의 생애사를 노동을 중심에 놓고 재구성하면서 이들의 삶의 경험과 서사

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 4.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생애사적 접근과 해석

##### 가. 북한이탈주민 노동생애사 해석의 목적과 방향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직업’이나 ‘지위’상 변화를 기술하여 비교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노동생애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들이 북한에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이라는 것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게 되는 것인지 시공간적 연속과 단절을 현재적으로 되짚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 제3국, 남한을 이동 및 정주하면서 북한, 제3국, 남한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변화는 어떠한지 시공간적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노동생애사라고 했을 때 이 노동이라는 것과 연관된 활동과 가치들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노동은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재생산’ 노동이 더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제3국에서 거주하거나 현재 남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노동과 돈 벌기는 연관되어 있지만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남한에서는 경제활동이고 돈 벌기와 연관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노동을 하는 것이 돈 벌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에 의해 배치되어 하는 노동,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노동, 가족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 노동 등 그 모든 노동들이 노동생애사를 구성할 때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하는 것은 생산 노동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공사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들의 생존, 친밀성, 사회적 인정 등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서 노동의 의미와 연관된 지점들을 포함한다. 그럴 때 젠더, 세대, 제3국 거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의 의미나 가치를 더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시

공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노동자였거나, 혹은 앞으로 노동자가 될 예정인 사람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 즉, “노동자로 산다”라고 하는 시점과 과정은 이들이 북한, 제3국, 남한을 살아오면서 그 정체성에 변화를 겪고 이는 단순히 노동자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인 어머니, 딸, 아내, 남편 등, 거주국의 변화에 따른 지위와 정체성인 북한 주민, 난민, 남한 시민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노동의 형태나 그 의미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과 변화들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연구자와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그 ‘과거의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으로 진술되는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서사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자료는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서사(narrative)’인 것이다.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민할 때, 바로 이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점을 짚어 보는 것과 동시에 이를 현재에 연구자에게 어떻게 의미 부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이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발화할 때 개입되고 있는 권력 구조와 관계성은 무엇인지- 그 서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바로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도 개입되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노동과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노동을 생애사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해볼 것이다.

## 나. 자료

이 장에서는 앞서 심층인터뷰를 한 20명의 북한이탈주민 연구참여자 중에서 총 8명을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은 아래 세 개의 절의 주제에 맞는 사례들을 추리고, 그 사례들 중에서도 가능한 북한과 제3국, 남한에서 노동하는 삶의 연속성과 단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 젠더화된 패턴의 이동성과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세대와도 연관될 수 있는 사례

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다룰 수 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였다. 즉, 이 장에서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자료들을 선별하면서 ‘젠더’와 ‘세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뷰 자료의 한계로 기성세대의 남성 노동자의 사례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남성 노동자의 경우 주로 청년세대의 사례를 통해 해석되었으며, 젠더화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해석하였다.

### 제3절 사회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의 가치 : 경제와 생존, 그리고 인정 투쟁

#### 1. 일하기와 ‘돈’ 벌기 : 북한에서 돈 벌기와 남한에서 돈 벌기, 그리고 살아남기/살아가기

C11씨는 40대 초반 두 아들을 데리고 소위 직행으로 남한으로 왔다. 그녀는 자신이 남한에 갈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혼 후 그녀의 남편은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중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자 그녀와 아들들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한에서 남편이 자신들을 찾겠다는 연락을 브로커를 통해 받았다. 남편은 애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그녀는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남한으로 가는 길이 될 줄은 몰랐다.

“애들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만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나를 속인 거나 같지. 속여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라고 말하며, 그녀는 하나원에 나온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엄청 울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딱 여기 바뀐 구간에서 나는 살고. 그리고 40년 넘게 거기서 살아온 거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형제들도 다 있고 정이 들었으니까” 남한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던

상황에서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다. 남한에 오고 보니 남편은 이미 남한에 가족을 꾸려 살고 있었고 자신과 남편 사이는 이혼이 되어 있었다.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또다시 그러나 생면부지로 처음 온 이 남한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했다.

“제가 원래 생활력이 조금 강해요. 왜 그러냐면 18살에 엄마 일찍 잃었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8살에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력을 생활력이 엄청 강한 데다가 나한테 애들 둘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벌어야지만이 애들 살리다,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잡기 힘들고 지형 잘 모르고 맨 처음에 알려주는 사람 없고 이래서 담당 형사한테 엄청 매달렸어요. 일자리 잡아달라고. 근데 형사님들도 일자리를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알지 못하니까. 그냥 형사님들은 우리 신변 보호만 할 의무가 있지 일자리를 그 사람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엄청 울었어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살았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고 뭐고, 그러니까 딱 감옥 생활하는 거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맨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한 3개월을 그러다가 애들 12월달에 왔으니까 3월 달이면 개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개학시키고 내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 이게 항상 딱 가지고 있었고.” (C11)

18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부양을 담당해야 했던, 일찍이 경제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온 C11씨는 북한에서도 그랬듯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생활력 강한’ 자신을 믿고 온 지 3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다. “3월 1일날 학교 붙이고 2시부터 그다음에 짝 다니면서 인력사무소 이렇게 쓴 거 간판을” 보고 연락을 해서 생산직 업무를 하는 곳에 아르바이트 취직했다. “그다음에 이거 기초수급비 받던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불안해서 기초수급비 타고 일하는 게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회사 취직했습니다 신고”하였다고 했다.

C11씨는 하나원에서 자신이 미싱을 잘 하자 디자이너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추천을 받았었는데, 4년짜리 학교라고 해서 바로 포기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센터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도 들었는데 그때 “사무직이 전형적으로 딱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사무직이 보고 하라고” 그러면서 복지 관련 학교를 다닐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사이버로 대학을 한 달 다녔으나 아르바이트랑 함께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애들이 어리잖아”라고 하면서 “40대에 와서 나 이 계산을 해보니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일단 현장에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직’을 선택한 것이다.

C11씨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북한에서 18살부터 가족들의 생계부양을 해야 했고 결혼 후에도 두 아들의 생계부양과 돌봄을 모두 책임진 경제적 주체로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에서 항상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모든 노동, 일하기의 의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관련된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돈 벌기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상황은 선택지에서 배제시켰다.

C11씨가 북한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상황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떠안았기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거나 선택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갑작스럽게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장마당에서 처음에는 장사를 못 했어요. 올 때까지 장마당 장사는 못 했어요. 처음에 엄마 없고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들어갔으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 엄마 같은 날 죽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진짜 맨손으로 가족을 유지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남의 거 그냥 음식을 50개씩 넘겨 받아 팔면서 이렇게 해서 밀천을 모아가지고, 밀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금 불려서. 그냥 이게 달리기라는 게, 차 타고 이렇게 장거리 장사, 장거리 장사하다가 여기 오기 한 5년 전에 돈을 벌어가지고 달려 장사했어요. 집에서 돈 장사.” (C11)

중학교(남한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갑작스럽게 돈을 벌어야 했는데, 밀천도 없이 갑자기 뛰어든 장마당에서 물건을 떼다 팔면서 조금씩 돈을

마련해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는 ‘달리기’라는 장거리 장사를 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였는데 스스로 경제력을 갖춰가면서 자신이 돈을 버는 일에 자신감을 점점 갖게 되었다. 결혼하고도 그녀는 계속 장사를 했고 비록 남편이 몇 년 후에 장사를 하다 사라지는 상황이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수완을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에 오기 전까지 ‘달리 장사’와 ‘개인 식당’을 병행하고 있었다.

“돈 장사를 하는 집이 고정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시각각 오르고 내리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음력 설 쇠잖아요. 양력 설 안 쇠고 음력 설을 많이 쇠고 오면 음력 설 딱 한 달 전부터는 달러 값이 내려가요. 그때 달러를 쪽 잡아요. 달러를 그레가지고 음력 설 지난다면 달러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때는 우리 국돈을 또 까요. 또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돈 장사라는 건 장사가 80% 하거든요. 회사가 안 돌아가요. 북한에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꾸려와요. 그러면 은행에서 여기서서 꾸잖아요. ...

그거 하면서 집에서 개인 식당 했어요. 개인 식당은 어떻게 돼서 개인 식당 하게 됐냐면 석탄이 중국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장성택이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연결된 게 그게 돈줄이 나한테 열리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도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딱 통과해서만이 석탄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그 25톤짜리 석탄 차가 몇십 대 몇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몇 달 만에 집에 가는 평양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개인 식당 했어요. 집에서.” (C11)

집에서 개인 식당을 하게 되면서 매우 바쁘긴 했지만, 손님들이 많아 동네 사람들도 일거리를 찾아 C11씨네 집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갈 만큼 식당도 성행하고 경제적 기반도 더 탄탄했다. 비록 남편은 부재하고 그로 인해 감시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녀는 자신이 일군 경제력으로 두 아들을 키울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애 키울 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들 잘 때 나는 새벽에 그냥 두세 시간 자고 새벽 3시에 이거 나가고. 그러니까 큰애가 건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만큼까지 올라서 가지고 그 돈만 있으면 또 이거 한국

보다 살기가 좀 수월해요.”라고 말했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고되긴 했지만, 그녀가 북한에서 닦아놓았던 기반과 벌어놓은 돈이 북한 사회의 수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벌고 있는 현재 자신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당시에 자신이 번 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면 한국보다 살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느낄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한으로 털럭 오게 되었을 때, C11씨는 자신의 생활력을 믿고 다시 돈 버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고,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적성을 찾아주고 교육을 권해도, 그녀는 그것이 스스로 당장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녀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에 두고,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제품 샷시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1년을 하고 그 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7년째 근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직장에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평균 이직이나 근속연도와 비교해서 볼 때 흔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일했을 때 업무가 어땠냐는 질문에, 그녀는 “처음 일하고 한 주일 동안 목도 이거 못 돌려요, 그래서 애들이 목 돌려주고 이어 세우고 이렇게 근데 그냥 이를 물고 그냥 울면서 여기서 내가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일하면서 몸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면서 이게 한두 달 되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라고 했다. 북한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8시간 혹은 야근하면 10시간 동안 반복적인 노동을 지속하고 그 생산량을 체크 받아야 되는 업무 방식이 몸에 익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도 완벽히 가르쳐주지 않고 일단 할당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 옆에 먼저 와서 일하는 선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눈치껏 배워서 일을 해내야 되기도 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하나라며, “다른 회사 못 가요. 월급 차이가 이제는 너무 상승해서 내가 웬만한 남자 월급보다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른 회사 가면 최저임금부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거 때문에 갈 수가 없죠”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자신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만큼 경력도 인정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는 진짜 엄청 그냥 눈 뜨고 깨어나면 1년 365 날을 비 오나 눈 오나 밖에 나가서 장사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사만 딱 자기 회사 취직만 되면 일단 출근만 하면 돈이 저질로 들어오잖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일하니까 딱 일어나면 나도 회사가 있어서 일하러 나가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이 힘든 거 모르겠어요.” (C11)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남한에 와서 8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를 다녔다. 공장, 식당 등 인력사무소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일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식당 등에서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왜 주말에 쉬지 않고 고되게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그때는 그냥 솔직한 말로 정신적으로 좀 고통도 없애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막 슬프고 이러니까 잡생각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월급도 많이 오르고 좀 쉬어도 되는데 굳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 회사 사람들도 항상 그러거든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 북한에서 살던 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나 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 아들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전세든 월세든 나가면 엄마가 각자 얼마씩 준다는 이 목표가 나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가 뿌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다만 얼마라도 힘이 되게 버텨줘야지 앞으로 너네가 조금 살기 편하다 이거 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C11)

C11씨의 두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남한 교육 제도에서 아무 걱정 없이 바르게 잘 자랐다고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럼에도 남한 사회에서 ‘뿌리’가 없다는 생각은 그녀가 현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문제를 계속 상기시킨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자기 자신

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로서 남한에서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부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한다.

## 2. ‘직장 생활’과 직위 갖기 : 남한에 잘 적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승인

C10씨는 17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40대 중반이 넘어서 혼자 남한으로 왔다.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거 나는 여기서 제일 힘들게 살아요, 거기서(중국) 놀다 왔어. 그래서 아들 키우고 그냥 집에 있었으니까”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근데 나는 정부에서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 중국, 남한 세 곳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인생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 곳이고, 회사생활(작업, 인간관계)의 고됨을 토로하면서도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C10씨는 북한에서 아버지가 “조금 지위가 있었던” 입장이라 남들보다 힘들게 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원래 자신이 살던 지역이 아닌 양강도 지역에 가서 경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그때 졸업하고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북한은 여기처럼 막 무슨 꿈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계잖아요.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이러지 무슨 꿈 같은 거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무슨 회사 들어가야겠어 이래야지 그게 의무지. 아이고 뭐하고 이런 건 없어. … 왜냐하면 거기(북한)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 갖고 일하게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 왜냐하면 사탕 만드는 일은 그냥 기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성형 툽툽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 포장하면 되는 일이 됐어요.” (C10)

C10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식료품 공장으로 배치를 받아 일을 하였다. 그녀는 그 일이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목표를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

다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다니다가 밀수를 시작했다. 이런 저런 밀수를 하다가 한번은 여러 사람이랑 같이 ‘동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양강도 지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차를 끼고 동장사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중간에 발각이 되었다. 이후 잡히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녀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넘겨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C10 씨는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것이 걱정이 되어 절대 연변이나 북한 가까운 곳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앞으로 가자면 사람 하나 다리 하나 더 뉘야 돼,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막 사정했어요.”라고 했다. 그녀는 중국 내륙지방 쪽에 있는 한 도시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 도시의 한 중국인 가정집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주로 집에서 아들을 키우는 일만 했다. 그래도 도시에 있다 보니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편하게 생활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연변 쪽에 나와서 식당 일도 해봤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 하고 난 뒤에 “야 이 식당 일은 진짜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때 경험으로 남한에 왔을 때도 식당 일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중국에서 생활한 지 17년 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중국인으로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은 중국에 두고 자신은 혼자 남한으로 와서 살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나는 일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일하면 돈 주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구요. 북한하고 차이점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 했어요.”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녀는 늘 일을 했다. 그런데 40대 중반 넘어 혼자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직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나는 제일 처음에 하나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뭐 그 1년에 얼마씩, 나 그 프로가 제일 의미가 있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원에서 강의할 때 사회 나가면 1년에 내가 얼마씩 모으겠다 이런 거

작성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생각했었어. 난 그때부터 생각했거든요. 나 1년에는 무조건 1,000만 원 모으겠다. 선생님 그때 알려줬어요. 한 달 월급이 얼마고 월세 얼마고 이렇게 가정해 갖고 자기가 한번 계획 세워라 할 때 난 그때 제일 처음에 나는, 나는 1년에 무조건 1,000만 원 모아야겠다 하고. 내가 그렇게 작성하고 나 원래 그때 그다음에 미래행복통장 취업장려금 이런 거 다 가르켜주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에 엄청 관심이 많아 갖고 그거 기억 딱 하고.” (C10)

C10씨는 하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미래행복통장’과 ‘취업장려금’에 대한 것을 알려줬던 강의였다고 했다. 지역 임대아파트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바로 인력사무소로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 6개월 동안은 정착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다. C10씨는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공장에서 ‘검수’하는 작업을 했다. 7년 동안 그녀는 총 3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모두 다 제품을 검수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알바하고 직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하면 제가 알려줄게, 알바는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바는 러시아 사람 중국 조선족 많아요. 범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하루 일만 하면 돈만 받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회사는 아니잖아요. 회사는 장기적이니까 회사를 딱 가면 사람들이 벌써 이미지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벌써 그 뭐라 할까 질투라고 해야지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해요. 진짜 거짓말은 아는데 근데 내가 그때 그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다니는 회사마다 내가 제일 막내 됐어요. 신기하게도 생산직이니까, 생산직으로 들어가니까. 뭐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아니고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 들어갔는데 생산직을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막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막내인 데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틴다는 게, 그 뭐라 할까 속상할 때도 엄청 많았어요…. 회사에 버티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왔다 가고 왔다 갔고 이 사람들도 딱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고 그냥 대충 설명해요. 이거 이렇게 한다 이러지 뭐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거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이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적응하는 게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가는 사람 있고 1

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적응하고 못하고가 갈리는데. 나는 회사 들어가서 기본자세가 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자세로 가야지 사람이 목표가 주어져야 돼요.” (C10)

‘알바’와 ‘회사’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시급과 같은 돈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버틴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업무를 배우는 능력 등 ‘사회적 적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기본자세가 ‘태도’이자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가시적인 목표로서 그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서 하나원에서 처음 접했다고 했던 ‘미래행복통장’과 ‘취업장려금’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자신이 세운 ‘목표’라고 하였으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한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이 목표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이를 남한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는 자기 증명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적응했다는 징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취업장려금은 5년 안에 3년 동안 1년, 2년, 3년 근속연수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돈이었다. 그녀는 3년을 연속으로 다녀서 가장 많은 취업장려금을 받겠다고 결심했지만, 첫 번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1년이 지난 뒤에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회사를 옮겨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기저귀를 검수하는 작업을 했다. 그녀는 2년을 채워서 취업장려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는 겪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고충이 너무 컸음을 토로했다.

“우리 회사는 그 기저귀 만드는 회사 됐어요, 아기들, 근데 여자들이 엄청 셋거든요. …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에 들어오고 하면 재는 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잘 되는 거 별로 우리 북한에서 와서는 막 이렇게 혜택도 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행복통장한다, 취업장려금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엄청 불만이 많더라구요. ...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러거든요, 질투하는 거지 서로. 근데 그걸 어떻게 버티는가 못 버티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 심한데 버티는 사람은 버티요. 근데 못 버티는 사람은 못 버티더라구요. ... 그냥 아 내가 참으면 이 상황을 벗어나겠지 벗어났는데, 그게 자꾸 쌓이면 이 스트레스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말하면 막 신경질 나고 이러는데, 그 취업장려금이라는 그게 딱 걸려가지고.” (C10)

C10씨는 회사에 있는 남한 동료들이 취업장려금이나 미래행복통장을 북한이탈주민들만 갖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회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바로 회사 생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이었다. 그녀는 취업장려금이 아니라면 두 번째 회사에서 2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이미 1년은 첫 번째 회사에서 받았고, 이제 2년을 버티야 자신이 목표했던 취업장려금을 받는 것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2년이 지난 뒤에 취업장려금을 받고, 바로 기저귀 검수하는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5년까지 미래행복통장이라는 목표가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세 번째 회사로 옮겼다.

“근데 나는 그게 하나 좋은 게 뭐가 하면 미래행복통장하고 취업장려금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얼마 무거운지, 근데 나는 그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뭐 포기하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참고 내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 진짜 밤이고 낮이고 막 그 추운 때도 난 그렇게 해서 내가 버티고 다녔는데 버티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는 게 미래행복통장이고. 그게 아니면 사람이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 진짜 이제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 목표가 얼마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처음에 와서 적응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지금 내가 해보니까 느꼈어요. 지금 야 저거 그래 저거 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고 지금도 회사 생활한다 이거예요.” (C10)

세 번째 회사에서 그녀는 전등 검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4년째 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바로 미래행복통장 5년을 다 채워서

약 4,800만 원의 목돈을 자기 앞으로 해두었다. 세 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녀는 ‘일을 잘하는 것’과 ‘회사생활을 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회사 못 다니는 사람들 하다가 나온 사람들 보면, 북한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못 버티나? 이거 말 많으니까 말 많고. 그다음에 이거 성격 옥하니까 회사는 성격이 옥하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 흐름대로 가면 되는데, 남보다 더 잘하면 내가 이거 왜 보상이 없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자꾸 사람들이 뒷소리하고 하니까 지쳐서 그냥 나와버리죠. …

우리 다니는 교회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들에게 꼭 말해요. 취업장려금하고 미래행복통장은 무조건 알아봐라, 난 진짜 전도사처럼 진짜 무조건 말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버티, 나는 그냥 버티라고 그래요.”  
(C10)

인터뷰 내내 그녀는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일을 잘 못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간중간 자주 언급했다. 일 못하는 북한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녀는 바로 이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겪는 차별이나 무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자 목표를 설정해야 바로 회사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바로 그것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다른 북한 사람들에게도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게 나는 여기서 제일 힘들게 살아요. 거기서(중국) 놀다 왔어. 그래서 아들 키우고 그냥 집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일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정부에서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저축이라는 그 개념이 생겼잖�

아요. 그게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4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끝나고 제가 그때는 50만 원씩 해도 지금은 150씩 저축하거든요.” (C10)

C10씨는 이제 자신이 목표는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나가면서 이제는 스스로도 저축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녀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목표로 한, 경제적으로 잘 자립하고 적응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녀는 “나는 여기서 제일 힘들게 살아요”라고 말한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삶과 매우 다른 차원이겠지만, 남한 노동시장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고된 순간들을 겪게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C06씨는 남한에 온 이유로 “다리 고치러 왔다”고 했다. 그녀는 34살에 탈북하여 10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고, 그 이후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바로 북한에서부터 계속 절며 지내야 했던 다리를 고치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나 다리 고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고, 국정원에서 병원에 여기저기 다 검진하러 다니면서 하나원 나와서 수술하게 된 서울대 분당 거기서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쌍지팡이에 휠체어 타고 퇴소했습니다. 그때 하나원 선생님들이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정착하겠나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글서 정말 저도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살아가겠나. 아무 도움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는 혼자 왔습니다.” (C06)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도, 그녀는 4달이 지나 어느 정도 걸을 만하자 바로 “7만 원 벌이 포도를 따는 일”을 했다. 그녀는 “한국에 오니까 내가 벌지 않고는 못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6개월간 수급비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포도 따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회사에서 식혜 만드는 일 등 알바를 병행했다.

그러던 중 하나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하면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다리 수술로 진단서를 떼서 1년 동안 수급비를 연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수급비를 계속 타는 것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1년 만에 하

나센터에서 미화직을 추천하였고 그곳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그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북한에서 C06씨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를 했다. 신병 훈련 기간 중 6개월 만에 차에서 떨어져서 골반이 빠져나오는 사고를 당하고, 그 뒤로부터 그 뒤로부터 다리를 살짝 절게 되었다. 그렇게 제대가 된 후 그녀는 재정전문학교를 나와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출납원으로 시작해서 34살에 상점 책임자가 될 때까지 근무했다. 그러나 상점 수입은 국가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중간에 달리기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달리기 장사를 하면서 만난 장사꾼이 음식에 약을 타서 그녀를 중국으로 데려갔고, 그 길로 그녀는 북한에 2명의 자녀를 남겨둔 채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해서 중국인 가정집에 들어가 10년 동안 살았다. C06씨는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잘 모시고 살았고, 남편과도 다행히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남한으로 가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자신의 다리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가던 조선족 한 남성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남한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는 그 조선족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국정원과 하나원에 있던 시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되지 않아서 그녀는 계속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하나센터에서는 장애인증을 받아오라고 하였지만, 수술을 해준 병원에서는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장애인증도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결국 8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다리 재수술을 사비를 들여 보험을 통해서 재수술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 처음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다리를 절며 지내다가 재수술을 받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8년 동안 그녀는 미화원으로서 근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픈 몸을 이끌고도 8년 동안 미화원으로 근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표였다.

“청소가 근데, 우리 북한에서 청소를 하면 제일 하바닥 제일 하직업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뭐 한 상점 책임자 점장까지 하던 게 내가 무슨 청소하러 여기 왔냐 이런 각오로 사실은 재계 됐습니다. 선생님(하나센터 취업상담사) 나 안 간다 청소, 이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는 좋은데 하시는 거예요.” (C06)

하나센터에서 처음 미화직을 주선했을 때 C06씨는 처음에는 ‘청소’를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북한에서 북한 상점 관리를 한 일과 비교했을 때 남한에 와서 기껏 청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센터 취업 교육을 받고 단기 연수를 하게 된 곳이 해당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청소 업체였으며, 이 청소 업체는 대기업인 P기업이 이 상주하고 있는 고층 빌딩을 맡아 청소하는 꽤나 탄탄하고 튼실한 업체였다.

이 단기 연수가 끝난 뒤 그녀는 ‘청소하는 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그 뒤 하나센터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고 취직을 했다. C06씨에게 북한에서 청소하는 일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미화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단기 연수 기간에 청소할 때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섰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정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돌아서고 이래 됐는데. 고객들이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솔직히 고객님들은 P기업 사람이라면 좀 높은 직계의 급수의 고객님들이잖아. 근데 그분들이 머리 숙여서 우리에게 인사할 때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거 내 직업이 참 좋네. … 또 연간에 어떤 때 P기업에서 이렇게 공연도 마련해주고 총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미화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쳐주자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가슴이 막 뭉클한 거 있잖아요.” (C06)

이처럼 C06씨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청소’라는 일을 꾸준히 하며 S회사에서 근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청소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남한 사람

들이 미화원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그녀의 인식을 바꾸게 했던 것이다.

“근데 또 우리 S회사의 사명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함을 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청결한 작업에 작업장에서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서비스고 최대의 그 임무고 그리고 청소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 말이 참 정말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 속에서 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청소는 진짜 하나의 과학입니다. 왜 세계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막 세계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세계는 물과 어떻게 몇 대 1로 희석시켜야 되고 써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막 해놓은 걸 볼 때는 막 자부심. 그리고 그 청결한 작업장이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하나의 예술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느구나. 깨끗하게 막 정렬됐고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짝 정렬해 놓은 게 얼마나 거기 멋있어요. 진짜 예술같이 그림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참여해서 예술이고 과학이고.” (C06)

청소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는 회사의 교육은 단순히 문구가 아니라 그녀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기술이나 청소하고 난 후 그녀가 느끼는 뿌듯함으로 경험되면서 그녀의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애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S회사에서 8년 동안 근속하면서 미화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행복통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자신에게 직장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게 수급비 타는 것보다 90만 원보다 회사 나가면 170만 원 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고 또 그런 배려가 있잖아요. 미래행복통장. 진짜 미래행복통장 또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얼마 보태 주고 이러니까, 그거 받았습시다. 그거 가지고 집 보증금 좀 더 넣고 또 차… 미래행복통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형사님이 말하는 게 자기가 담당할 이 우리들 중에서 3명밖에 미래행복통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게 없다.” (C06)

C06씨는 자신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수급비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월급뿐만 아니라 미래 행복통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녀는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취직을 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하여, 미래행복통장을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제4절 젠더화된 이동성과 노동 :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중첩, 분리, 양립

### 1.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돌봄을 위한 사회자본 획득의 어려움

D01씨는 본 연구자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 면접은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쭙보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직장'을 구해 일하는 것, 특히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던 것이다. 남한에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했는가 여부이다. 그리고 자연히 이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비(생계비)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바로 이 수급비를 계속 받느냐 여부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하는지, 독립된 삶을 사는지, 즉 안정적인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한 지표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치 담론, 특히 사회 적응 부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들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D01씨도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꼭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

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집에서든 밖에서는 돈을 벌고 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 활동들도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남한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항상 자신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D01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그녀가 북한에서도 그리고 남한에 와서도 항상 나름의 수완을 발휘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삶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01씨는 34세까지 북한에서 살았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북한에서도 병원에 가면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었다. 34세 이후 중국에 건너온 이후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해보게 됐고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명확하게 병명을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 집이 가난하지는 않아서 허약한 몸을 걱정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약 등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여주셨다. 중학교(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 전문학교로 진학했다.

“일 시작하기보다 놀려고 사실은 전문학교를 갔거든요”라고 말하면서, D01씨는 전공은 기계공학과였다고 했다. 90년대 말 즈음 그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를 받은 첫 직장은 ‘기상관측소’였다. “첫 직장은 저 기상관측소 다녔어요. 날씨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라고 대답한 뒤 이 기상관측소를 1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사형했던 그 자리였다 했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제 내가 전문학교 다닐 때 사형했을걸요. 그러고서 그 사형했던 데는 1년 하다 가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피복 공장 다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피복 공장 지배인이 오라 하더라고요. 자기네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왜?) 동생은 그때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지배인이 자기네한테 와서 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상관측소 다녔는데 되냐 그러니까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 공장에서 한 3년을.” (D01)

기상관측소에서 1년을 다니다 그만둔 뒤, 그녀는 동생이 다녔던 피복공장

으로 옮겨 3년 일을 했다. 그녀 말로는 이 공장에서 미싱 일은 많이 배우진 못했다고 했다. 미싱 일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을 정리하는 잡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미싱을 잘하게 된 건 이모 때문인데, 이모가 집에서 미싱을 하고 있어서 이모로부터 미싱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회상했다.

D01씨는 공장에 다니던 중 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녀는 공장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1년 뒤쯤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들을 출산하고 난 뒤에 그녀는 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가 술을 자주 마셔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D01씨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심장이 약해 밀수는 못하고 소소하게 장사”를 했다고 한다.

“출산하고서 그냥 장사를 했어요. 장마당도 하고 근데 장마당 장사라는 게 하다 가서 엄마한테 물려줬거든요. 제가 하던 거 엄마한테 물려줬는데 그다음 보고 나니까 제가 할 거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주고 나니까 엄마 거를 뺏어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엄마한테 주고 나니까 이거 할 거 없어서. 그다음에 또 사촌 동생한테 갔는데 사촌 동생이 이 시계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는 언니가 하는데 언니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해서 근데 그 여자가 보니까 배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계 수리하는 걸 배워가지고 와서 집에서 시계 수리하는 걸 했어요. (이렇게 부업처럼?) 네 근데 그게 돈 꽤나 많이 벌었어요.” (D01)

시계 수리 기술을 배워 수리도 하고 또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쓸모없는 시계들을 거둬 그 안의 동을 가지고 팔아서 장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저럭 장사는 잘 되었는데, 그녀는 “2009년도 화폐 교환했을 때, 화폐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졌다고 했다. 당시 3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된 그녀는 “내가 북한에서 더 살아봤잖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해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계획을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가야겠다. 여기서는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살아봤잖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기서 더 못 벗어나겠구나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중국으로 온 거죠. (그럼 중국 오실 때는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게 목적이셨어요?)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근데 오다 보니까 제가 또 중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냥 그래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농사하는 사람 만나서 농사로 살았어요.” (D01)

중국에 와서 D01씨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했다. 중국 남편이 병원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심장 판막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술을 해 주기는 꺼려했다고 했다.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생리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 심장에 좋은 약을 정기적으로 맞으면서 지냈다. 그러나 그녀는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농사일을 거두면서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이 하는 농사 규모가 적지 않아서 일꾼들을 고용했었는데, 일꾼들의 끼니를 챙기는 일을 그녀가 담당하였다.

“아침만 그냥 우리끼리 먹고는 점심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쓰다 보니까 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꾼들 밥해 주는 거 했죠. 그것도 힘들었어요. 아침 먹고 나면 돌아 앉아서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한 두 명도 아니고 한 10명씩 썼거든요, 일꾼을.” (D01)

그녀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쉬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중요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매끼 일꾼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을 그녀가 도맡아 한 것이다.

그러던 와중 한국으로 가는 선을 대주는 브로커를 알게 되었고, 중국 남편은 한국 가면 수술할 수 있다는 말에 선뜻 보내주었다. 그녀는 “우연치 않게 한국 가는 브로커가 나와가지고 신랑이 중국 남편이 한국 가라 한국 가면 수술할 수 있다. 거기 가면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돈을 쥐어줘가지고”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7년의 중국 생활 뒤 그녀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40대 초반이 되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는 그녀를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나

서 바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하나원에 와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 방에서 쉬었다고 했다. 하나원 교육을 받지 않는 않지만, 그녀는 지역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 컴퓨터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자신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미싱이나 시계 수리 관련된 직업을 구하려고 보면 마땅한 것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D01씨는 하나원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친해졌고, 1년 뒤 출산을 했다. 그 남성과 결혼은 하지 않았기에, 출산 후 그녀는 아들과 둘이서 낯설면서도 새로운 한국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당장은 취업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심장 수술과 출산 등으로 건강도 회복을 더 해야 되었기에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수급비만 받으면서 생활하기엔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녀는 차차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네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출신 언니와 이것저것 함께 알아보다가, OO구청 주민센터에서 미싱을 교육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민센터에서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하던 미싱 수업에 다니던 중, 미싱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수업 중 제공되는 원단을 무료로 받아온다고 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원단을 많이 받아왔다고 했다. 어느 날 너무 많이 받아온 원단을 보다가 그녀는 그걸 인터넷 카페에다가 올렸고, 그 원단 산다는 사람이 생겨서 그걸 거래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

“미싱 하는 카페였어요. 미싱을 하는 사람들이 카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단을 싸게 주니까 거기서 뭐 남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근데 모르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을 좀 어느 정도 팔면서 가지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사서 아까 모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경제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천도 팔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재단한 원본 있잖아요. 그것도 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맘보바지라든가 이런 바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바지 만들었는데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신 분 하면은 저기 사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패턴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활동은 그렇게 늘어나고.” (D01)

D01씨는 처음에는 원단, 그다음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단 원본을 만들어서 인터넷 카페에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다음에는 중고 거래 마켓에서 원단이나 재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봐서 다른 물품들도 좀 싸게 샀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윤을 붙여 팔았다. 이 일을 하면서 그녀는 북한에서 자신이 장사를 했던 경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장사를 그래도 잘 했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의 감각이나 눈썰미를 다시 되살리는 것과 같이 소소하지만 한국에서의 장사도 잘할 수 있었고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상황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다.

“경제활동으로 봐서는 차라리 북한이 좀 나았던가 싶어,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활동이라기보다 나쁜 걸 이렇게 내가 돈 버는 데서는 그쪽이 오히려 좀 더 뭐랄까 내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데 있어도 그래 뭐 이렇게 좀 저쪽이 아무래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뭔가 가진 거 없고 이러니까 장사가 뭐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뭔가 토대가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밑천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D01)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남한에서의 경제 구조가 다른 점, 그리고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설사 그녀가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수월하게 하기 어렵다는 걸 절감하게 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어머니와 친정 가족들이 있어서 아들을 맡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본격적으로 어떤 경제활동을 나서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처럼 집에서 물건들을 사서 그걸 잘 관리하여 판매해 택배로 부쳐주는 일이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수급비에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을 보태면 생활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는 있었지만 이 일도 불안정하고 밑천이 없는 장사였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비전을 갖기란 어려웠다.

“여기 OO(대형유통기업) 알바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알아 이렇게 알아도 보고 했는데 시간이 또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아이를 보내는 시간에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9시부터 해야 되는데 8시면 일을 하러 버스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9시부터 하는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은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안 벌고는 못 살겠고. …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점심에 또 데려오고 하니까 지금 힘들거든요.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근데 제가 보면은 또 아이들이라는 게 부모가 제대로 교양 안 한 아이들 보면은 조금 어떡할까 좀 버릇없고 좀 그렇잖아요. 아이가 성장에 방황하고 그래서 내가 못해도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를 좀 교양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참 힘드네요.” (D01)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학교에 들어가자 또 챙겨줘야 할 것들이 있기에, D01씨는 아직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금도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심장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진단서를 제출해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수급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기는 어렵고, 출퇴근하는 일을 하면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수급비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 2. 복수의 가족들 사이에서 생산-재노동의 복합 : 생계부양과 돌봄, 송금

“하나원 퇴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사회 일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저희 새터민들한테 6개월 동안 쉬라고, 힘들게 왔으니까 쉬면서 사회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파악도 하고 하라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라 했더니,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에다 자식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딱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쉬고 그다음부터 제가 일을 했거든요.” (D02)

D02씨는 북한에 두 아들을 두고 한국으로 왔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그녀는 두 아들에게 돈을 부쳐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OO기업 산하 회사에 들어가서 알바식으로 3달 정도 일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의약품 포장을 하는 일이었는데 “10분 휴식 시간에도 계속 이 옷을 백만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땀이 팍

젖었는데 그 옷을 또 갈아입고 그다음에 장갑도 한 3개 4개를 끼고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나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고 10분을 쉬어도 그 옷을 또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고 10분을 쉬어도 장갑을 또다시 다 갈아대야 되고” 작업장에서의 규율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다. 의약품 포장이다 보니 화장을 하면 안 되었거니와 매니큐어, 스킨로션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손놀림이 있었고 작업반장님이 2달만 버티면 정직원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제 속에 안 맞아서” 더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난 다음 원래 살던 P시에서 N시로 와서 “식당이 어떤 데인가 한번 경험을 해보느라고” 식당 알바를 하였다. “직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투를 못 배운 것 같아요.”라며 “한국말 문화를 잘 몰랐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아까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하겠다 해가지고 설거지를 시작했던 것”으로 식당 일을 배워나갔다고 했다.

D02씨는 식당 알바를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식당업을 하고 있는 남한 출신 남성을 소개로 만났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북한에 두고 가족도 있으며 그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즉, 북한에 두고 온 자녀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남편과 논의하였고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한국에서도 새 가족을 꾸리게 된 것이다.

“우리 아저씨가 바로 나한테 청혼해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혼인 신고를 그 혼인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저씨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고향에 자식도 있고 그리고 고향에 돈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그러니까 월급식으로 날 달라. 이거는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고향에 보내줘야 될 돈이니까 날 주셔야 된다고. 한국 분들이 외국분들을 이렇게 허용하자면 이렇게 지참 돈을 들여야 되잖아. 그거 생략하라고 나는 돈에 팔려 온다는 이런 이미지가 싫으니까. 나는 뭐 정부에서 뭐 다 국적을 줬고, 굳이 여기 외국분들 와서 국적을 따자니까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또 저는 국적을 뺐고 그다음에 나도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하고 나 주지 말라고 주지 말고, 그저 고향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좀

한 번씩 부모님도 계시니까 돌려주는 거 다 좀 신경 써달라고 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아닌 월급을 받아가지고 나는 거에다 돈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래서 월급이라기보다는 그 한 달 생활비까지 쓰라고 생활비로 쓰라고 그제 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가지고 고향에도 돈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저씨도 또 이따금씩 또 돈을 또 주면서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면 또 보내주고.” (D02)

그녀는 남편이 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받는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는 북한에 있는 아들과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월급식’으로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남편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두 아들 중 이제 10대가 된 작은 아들을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순차적으로 큰 아들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곧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지연되었고 그러던 와중 군대에 갈 나이가 가까워 잘못될 경우 위험이 높아 데려올 수 없었다. 그녀는 북한에 남은 큰 아들과 부모님에게는 계속 송금을 하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6년 정도 함께 식당 일을 했을 무렵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이 어려워졌고,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을 하게 되었다. 식당을 폐업하고 그녀가 벌 수 있는 수입이 없게 되자,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한 오면 결혼을 하면 집에서 이렇게 놀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 올 때도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경제가 발전된 나라니까 다 부유하게 살면서 집에서 다 노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와 보니까 진짜 생존 투쟁은 저희 북한보다 더 치열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딱 제정된 일을 위해 공산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일에서 더 넘어나도 안 되고 좀 모자라도 안 되고 하니까 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가져간다는 그런 거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것 같아요.”  
(D02)

D02씨는 당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았는데 “육아 여기서 말하면 유치원 교사”라고 했다. 이 대답을 듣고 연구자가 “유치원 교사 경력도 있으니 이를 더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다시 대학을 나오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나이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돈과 시간 그리고 기회와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새터민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대부분 보면 이 새터민 분들이 많이 해요. 한국 분들도 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있는데 새터민 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봐야 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다른 거 없죠. 직업에 대한 뭐랄까,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선택을 우리는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왜?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뭐 북한에서 교육을 했다 해서 그 자격증을 우리 여기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우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요양보호사,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식당 설거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보험설계사, 아니면 보험설계사라는 것도 대상이 한국분이 아니에요. 다 북한 사람들을 대상해가지고 보험설계사 하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이 한국 사회가 인맥 관리가 철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D02)

이 이야기는 비단 D02씨의 개인적 상황으로서만이 아니라 중년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돌봄 노동, 즉 상품화되고 있는 재생산 노동 영역으로 편입되는 이유와 그 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재생산 노동시장에는 조선족 해외 동포,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다.<sup>7)</sup> 특히, 한국이

7)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도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노인 돌봄 부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돌봄 노동의 저임금화와 여성화가 협상의 지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해외 동포 여성,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여성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돌봄 노동시장의 저임금화의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노동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D02씨는 오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오후에는 요양보호사로 소위 ‘투잡’을 했다. “하루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면 저녁에 아마 한 7시 8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장애인을 한 8시간 정도 보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 요양보호사를 내가 3시간짜리를 또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풀로 돌아간 것 같아요.”라고 하며, 하루에 약 11시간 정도 노동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기대한 만큼 많지 않았기에,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직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전히 북한에 있는 아들과 부모님들에게 송금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필요한 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업종인 카페를 창업하여 자신이 직접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지. 장애인이나 요양보호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솔직히 돈이 내가 생각했던 그 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고향에 보내줘야 될 돈이 있는데, 식당 일을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저씨가 좀 조금씩 돈을 좀 보태줘가지고 고향에 보내줬는데, 식당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때는 그 아저씨는 집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손 내밀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벌어야만이 고향에 돈을 보내줘

---

돌봄 영역에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낮지만, 제도 밖 비공식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은 50%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제도권 돌봄 이주노동자는 주로 중국 출신, 50대 이상 중고령자 여성이었다(김유휘·이정은, 2022).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공식 영역에서 수행되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비가시성이 높으며, 이주 여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임금 수준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야 되고 제 고향에 아들, 큰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내미가.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내가 아 내가 자영업을 해야만이 빨리 내 사업을 해야만이 돈을 내가 생각한, 내가 목적인 만큼 벌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뒀던 거 같아요.” (D02)

D01씨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남편의 도움도 컸다.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남편의 식당업을 함께 하면서, 가게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큰 역할을 해줬다. 이제 그녀는 ‘사장님’이 되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한 만큼 이 가게를 잘 운영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운영한 지 1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그녀는 또 다른 업종으로 가게 하나를 더 창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 자식이 또 딸이라면 내가 있지 중국에 와서 좀 체류하다가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망성이 있는데, 아들이다 보니까 남자들 잡히면 무조건 매를 맞던 뭐 북한 가면 무조건 또 총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국은 뭐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내 내 삶도 무선 우선 중요하지만은 북한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에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던져서라도 고생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 이 생각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버티고 견디면서 살라. 돈은 막 풍족하게는 못 보내주고. 왜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 하면 한국에 간 사람 다 이렇게 땅 파서 돈을 보내는가 해요.” (D02)

한국에 와서 그녀는 자기 자신, 남한의 가족, 북한의 가족 모두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 빠듯한 남한 생활에서 남한과 북한 두 곳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와 돌봄을 모두 고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남한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북한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일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부담과 어려움을 늘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서의 삶 속에는

북한에서 살았던 자신이 과거로 종료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연속과 단절의 경험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머니 그리고 딸로서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살게 해준 북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남한에서 돈을 벌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 제5절 ‘배우기’와 ‘일하기’ : 기술과 역량, 정체성과 자기의 재구성

### 1. ‘자격증’의 복합적 의미 : 도구적인 것과 자기 증명을 위한 것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이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받는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직종에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일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회사 관계자 등 행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A02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가 취업 지원을 하는 데 수월하다고 하였다.

“공공기관 미화직 같은 경우에도 요새 출퇴근이라든지 관리 이런 거를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격증 필요한 것 같아요. 있는 게 말로만 맨날 성실하다 뭐다 그게 아니라 자격증 있는 거 보고 아이 사람은 공부하는 기본이 되어 있고 괜찮구나 이거를 자격증 보면 알 수 있거든요. … 그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자격증은 언제 어디서 써먹을지 모르는 건데 있으면 좋은 거죠. 당장에 내가 이 사람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일 안 하고 있다가 없으면 그거 채용 기간 안에 못 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못 싸우더라도 나중에 싸우러 나갈 때 들고는 나가야지 아무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살도 없고 이러면 죽는 거죠.” (A02)

A02씨는 자격증이 단순히 직업훈련을 통해서 특정 업무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성실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행, 즉 “기본이 되어 있고 괜찮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취업상담을 하면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지 않으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도 자격증이 없으면 그 자리에 지원하더라도 취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특정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버스 운전기사, 운수업에서부터 중장비를 다루는 직종까지 자격증을 딴 뒤 관련 회사에 취직하거나 경력을 쌓아가면서 직업적으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에서부터 각종 서비스업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추천받으며, 이를 실제로 취득하여 서비스업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남한에 와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직업훈련 제도에서 훈육을 받는 것인데, 이 과정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관련 직장을 잡기 위해서만 선택하는 일일까?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이 남한에서 받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부여하는 의미와 교

육 시스템에서 실제로 겪는 경험, 그리고 이것의 효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C04씨는 40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직행으로 한국에 왔다. 북한에서 석탄 관련 공업전문학교 3년제를 졸업하고, 탄광 지역에서 임산 작업자로 일을 했다.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면서 직업은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음식 장사를 했다. 그리고 1년 뒤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기가 아파서 중국에 가서 영양제 사러 가면서 그 뒤로 중국과 오가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떼와 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연길 식당에서 일하던 중 잡혀 북한에서 4년이 넘게 감옥생활을 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그녀는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한국에 오면서 그녀는 북에 두고 온 딸에게 송금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처음 밟는 낯선 사회에서 그녀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젊은 북한이탈주민들 중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대학이나 자격증 취득이 오래 걸리거나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경우들도 있다. 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가 하나원, 국정원 과정 3개월을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나가게 되면 컴퓨터 모르면 아무것도 이 사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펙이라는 게 자격이 없으면 어디 가서 내밀거든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 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대학교 사회복지사 어느 대학교 졸업했다는 그게 스펙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바로 8월 개강하는 거를, 그쪽 학원에서 그렇고. 먼저 오신 친구 그러니까 또 오다 보니까 같은 교회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이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C04)

C04씨는 오자마자 컴퓨터 관련 학원을 먼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OO대학교를 입학했다. C04씨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식당 등에서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는 북에 있는 딸에게 송금도 해주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여 첫 직장으로 OO의료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 업무를 했다. 그러나 약 1년 반 정도 업무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

게 되었다.

직장은 그만두었지만 중간중간 의료 봉사도 다니면서, 그녀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 돌봄이나 병원 업무 쪽으로 자신이 적성이 맞다는 것을 찾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땀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그녀는 한동안 한의원에서 알바를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의료 봉사도 하고 사회복지나 그 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돌봄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한의원에 정직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다니면서 현재는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였으며, 동시에 통일 평화 관련 전공으로 OO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C04씨는 현재까지 취득한 교육 이수증 그리고 자격증이 약 20개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딴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둔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자격증 중에는 그녀가 한 직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최근에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있었다. 그리고 ITQ, 심리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장례지도사, 실버소통지도사, 이야기상담사, 타로심리상담, 건강관리사, 노인심리상담, 한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가정폭력상담원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이수증과 자격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 많은 자격증이 하나하나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 사진첩은, 낯선 남한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 노력한 그 증표들이 담겨있는, 남한 생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의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 한마디로 우리 식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온실에서 기르던 식물을 옮겨 심으면 못 살 듯이 사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접촉하기 너무 좀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안 했다면 아직도 아마 좀 뒤떨어진 문화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복지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이 내 손을 내밀어주면 그걸 뿌리칠 수는 없잖아요. 잡아주거든요. ... 저는 원래 지금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나라는 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어르신 탈북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자가 복지 센터 이런 걸 운영할 그런 목표를 하기 때문에 제

가 제 손으로 어르신들도 간호해 주고 도와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런 걸 제가 좀 그 꿈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해서, 그리고 장례지도사 자격증 왜 땀냐면 우리 북한은 그런 상식이 없어요. 돌아가시면 이렇게 염하고 돌아가신 분 옷 입히고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무리 복지관이 고 제가 센터에도 그 자격증 없으면 손대면 다 불법이더라고요. 법에 다. 근데 저는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랑 같은 가족 분위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신 분한테 그래도 예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격증을 많이 이렇게 딴 거예요.” (C04)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땀느냐는 질문에, C04씨는 취업을 위해 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상담이나 노인 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장례지도사 자격증까지 딴 것이다. “자격증 없으면 손대면 다 불법”인 한국 사회에서 따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활동하고, 그 행동반경을 넓혀가는 수단으로 자격증을 따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 2. ‘일할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 경쟁 사회 속 학력, 스펙, 기술과 사회생활

북한이탈주민 정책 중에서도 교육은 학력과 기술, 직업훈련 등 다방면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춘 부문이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과 일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청년 세대들에게 교육 경험은 중장년층 세대에 남한으로 온 사람들과는 다르며, 그 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와 더불어 자기 정체성

에 대한 고민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이지연, 2023).

E03씨는 19살에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북한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였다. 한국에 오자마자 막막했을 텐데 나름의 구상이 있었는데, 뭘 하고 싶었는지 연구자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는 뭘 해야겠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원에서 거기서는 저희가 나이가 어린 쪽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지만 어린 쪽이다 보니까 그때 거기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의하러. 그런 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한국에 나가면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되게,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면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너도 한국에서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 기술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살아남으려면 한국 애들은, 기술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이었던 것 같아 대학인 한국 친구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니까 너희도 한국에 나가서 살려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E03)

그가 하나원에서 “한국에 나가서 살려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읽었을 때,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우라는 것보다는 ‘대학’을 가야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어떤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투자해야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이해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교육 들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게 누가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저희는 그렇게 오면서 계속 교육을 받는 입장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에서 뭔가가 같은 내부에서 이어졌던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전부터 뭔가 항상 이거는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저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항상 누군가는 항상 우리를 가르쳐줘야 돼,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라 말하는 순간에 한국 사람 누구나 넌 이거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항상 그

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을 좀 안 하게 되잖아요.” (E03)

E03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하나원에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교육을 ‘받는 입장’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비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넌 이거 아냐’ 이런 식으로 물음을 듣고, 북한 사람은 늘 배워야 하는 입장으로 위치될 때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우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2달 동안 일해 브로커비를 해결하고 바로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남한에 오기 전에 본 드라마가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좀 더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전공 선택을 해야 될 때, E03씨는 “뭘 할까 생각해보다가 북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잘 살아요. 장사하려고 이런 거 그게 뭐냐 해서 그게 경영학과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 이런 쪽에 잘 되는데 사업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경영학과를 가야지”라며 경영학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1년 뒤 북한이탈주민 특별 전형을 통해 OO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막상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경영학 전공에 안 맞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 공부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 더 큰 고민으로 대학에서 겪었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 특례에 입학했다는 게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연장선에 있더라고요. 한국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게 쪽 이게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레벨의 대학교를 가서 어떤 또 직업을 얻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좋은 대학교를 갔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연결된다는 게, 대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대학교 여기서 그 어떤 실력을 능력을 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 이 동료들이 다 너무 부럽고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특례입학 했다는 걸

어디 가서 말을 하는데 좀 약간 쪽팔린 거죠. 어디 가서 한국 사람 만나서 이런 대학교를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 잘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나는 아닌데 속으로는 나는 그냥 특례입학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약간 그런 거.” (E03)

그러면서 그는 경영학보다는 인문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수업도 인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관련 지식을 더 알게 되고 위로도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갔다 오고 일도 하고 저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다름 경험들을 많이” 하였다고 했다.

“엄청나게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을 딱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해외 나가니까, 이전 이방인이 아니라 다양성인데 라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딱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 거기는 몇 개 수많은 나라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국적이 문제가 아니고, 난 한국 사람이야 하게 되면 거기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굳이 구별 안 해도 난 한국 사람 그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E03)

그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얻은 ‘배움’은 이처럼 북한에서 온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자기 해답을 찾아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경영학 전공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커져갔다고 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그는 처음으로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을 했다. 아는 형이 지방에서 배 타는 일을 창업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공동 창업을 하고 본인도 뱃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수입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경험들을 겪었다고 했다. 약 2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그는 이를 정리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생각을 정리하고자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취

직을 했다. 마침 아는 지인의 남편을 통해서 승강기 설치 관련한 회사를 알게 되었고, 수입이 괜찮다는 말도 들어서 취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사회생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대학교 때도 막 월세 살고 막 이랬지만 그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일하면서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직업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학생 마인드, 사업할 때 대학생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못 받고 돈 못 받아도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누군가가 누구를 고용하면 그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지불 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E03)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위 자본주의 생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때 창업도 했던 경험도 있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계약 관계나 회사 생활을 해보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대학생 때와는 다른 노동자로서의 자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직장 경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직장은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야 그때 든 생각이 갑자기 그냥 야 자본주의 능력에 맞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몇 개월씩 지나는 걸 보니까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내 능력이 너무 빨리 느는 거예요. 야 그러면 월급을 올려야지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하고 만 그냥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장하고 말해 가지고.” (E03)

그는 일을 하면서 높아지는 숙련도와 더불어 자신의 ‘능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는 남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잘 만들어가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

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끄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원만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딱 그런 어 특별한 전형으로 입학은 했지만, 결국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입학도 어렵지만, 그 견뎌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취업 이런 것들도, 취업시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취업 후의, 어떤 그 길에다가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더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견뎌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꾸준히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E03)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 차원에서의 숙련도와 대인 관계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는 남한 출신 동료들과도 불화 없이 적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면서,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자신을 확인하고 그 역시 대학생 때나 창업했을 때와는 달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으로서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그 집단에서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E03씨는 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회사와 협상하여 월급을 인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고 자신의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 제6절 소 결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이 북한, 제3국, 남한을 거쳐 오면서 어떻게 ‘일’이라는 것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에게 노동이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당국으로 자리를 배치받아 당연히 해야 하

는 노동,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 가족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 노동, 남한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자기 능력을 입증하며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 등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공사 영역을 넘나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계, 친밀성, 사회적 인정 등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서 노동의 의미와 연관된 지점들이 젠더, 세대, 제3국 거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장에서는 각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노동의 의미들을 크게 세 가지로 포착하여 각각 구체화되는 양상을 나눠서 살펴보고 해석했다.

첫째, 노동의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하기’인 것이고 이는 ‘돈 벌기’의 행위로서 경제적 주체로 생존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기와 돈 벌기의 방식 및 그 가치는 북한에서의 장마당과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기에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딸과 어머니라는 역할로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부양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는 구직, 직장생활, 조직 문화에 적응 등 북한과 다른 환경에 새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부터 경제적 주체화를 통해 생활력을 발휘하고 자기 증명을 한 경험은 남한에서도 가족 내 생계부양자이자 노동시장 내 노동자로서 일하고 돈 벌기를 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긍정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노동시장에서는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했다는 증표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남한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그럴 때 이 역량은 단순히 경제적 역량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행복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속할 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가 설계한 제도에 맞춰 수혜자가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동시장 및 취업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주한 소수자로서 사회적 승인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북한에서부터 중국, 남한에 와서까지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중국이나 남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는 소위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공-사 영역을 넘나들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 남한에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생산 노동을 할 때 돌봄과 같은 재생산 노동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남한 여성들처럼 경력단절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돌봄의 사회자본 획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보편적 돌봄 지원 시스템에 더하여 특별히 지역 단위에서 돌봄 연결망을 활용한 상호 돌봄 커뮤니티 구축, 돌봄 교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오자마자 하나원에서부터 취업을 위해 적성 찾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며, 이는 향후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노동자가 되는 과정으로 경험된다. 그런데 이들이 남한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배우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도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 받았던 혹은 받지 못했던 교육과 학력이 사실상의 생계나 취직 및 돈벌기와 연관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남한에 왔을 때 이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취직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자신의 숙련도나 인간관계 역량 등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직면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격증'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취직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역량들은 자격증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

기에 취업 및 조직 생활을 위해 자격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남한에서부터 중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 취직을 준비한다. 이들은 말투, 문화, 학력 등에 있어서 남한 출신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지만,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혜택이 양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가령,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스펙, 영어, 사회자본 등에 있어서 남한 출신 청년들과의 차이를 느끼거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한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은 한편에서는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남한 출신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력이나 사회자본 부족을 남한 출신 청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하는 점도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독려하여 이들을 위한 인턴십 제도나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6 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노동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곤궁에 따른 ‘난민’, 그리고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민’이라는 복합적 양태를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시장의 취업취약계층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과 노동 문제를 관련 통계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2023년 말 기준, 약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계자료로 살펴본 바, 북한이탈주민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직종, 취업 형태, 작업장에서의 경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기 전의 일 경험, 그리고 남한에 온 이후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취업 시도, 취업 이후의 다양한 노동경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의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

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고용서비스 내실화 추진 방안

일자리를 갖는 것이 어렵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 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에서 장기간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사후관리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고용서비스도 이러한 기초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는 인구집단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특화 고용서비스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 과정에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별 발음이나 사투리를 교정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특정인구집단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자료와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북한이탈주민 인구집단 내에서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상황과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임신-육아 출산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고령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층 북한이탈주민 등은 취업준비와 직업 생활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고용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인구집단 내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 경험을 고려한 고용서비스를 설계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정인구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는 고용서비스를 실

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과 지역 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취업상담사 등의 인력 확충 역시 필요하다. 이른바 ‘더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사’ 양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동료 상담가’ 방식은 장애계 등에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볼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한 경험을 한 ‘당사자’이자 ‘선배’의 상담 등은 ‘공감’의 정도를 높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취업 경험과 직장 근속 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북한이탈주민 동료상담가를 양성하여 내담자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동료의 지지와 경험 공유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래행복통장’ 확대-개편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미래행복통장이 자신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래행복통장은 현재 약정기간 최대 4년까지, 1개월 적립 한도 50만 원으로 규정되어있다.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고려해본다면, 미래행복통장 약정기간 및 1개월 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제3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른바 ‘선주민’의 인식과 담론 차원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일하는 사업장 차원에서 동료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일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동료와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남한 출신 동료와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출신 역시 북한출신 동료와 관계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남한출신 동료들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다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기존의 '선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향과 국적, 다양한 인종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다양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과 상호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출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향후 사회 갈등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면서 남한출신 사람들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경험을 가진 '이주민'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 그리고 사회통합 과정은 향후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통합 과정을 대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기, 함께 일하기를 연습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다문화-다양성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와 사회에 대한 비전과 경험이 익숙해진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역시 수월해질 것이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경애(2025),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의 창업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김귀옥(2016),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2), pp.11~44.
- 김성경(2017),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 : 친밀성의 재구성과 수치심의 가능성」, 『문화와 사회』 23, pp.265~309.
- 김영 · 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pp.215~260.
- 김유휘 · 이정은(2022), 「한국 돌봄서비스의 이주노동자 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346, pp.66~80.
- 김은정(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 미용사 L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1), pp.64~100.
- 김혜경(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 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7(2), pp.37~82.
- 노규덕 · 이정희 · 이일한(2021),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체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6), pp.107~117.
- 노은희 · 오인수(2016),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청년의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pp.235~264.
- 박소연(2017),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2), pp.5~30.
- 박현정(2020), 「1950-1960년대 강화 여성의 삶과 노동경험 : 강화지역 직물 생산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1(1), pp.89~130.

- 방진희(2017), 「근로탈북청소년의 남한에서의 근로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202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각 연도.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_\_\_\_\_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_\_\_\_\_ (2025),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류우선(2021), 「생존경로로써 경력단절 : 20대 1인 가구 여성의 '취업과 퇴사'의 반복적 노동서사」, 『문화와 사회』 29(2), pp.137~182.
- 송현진 · 조현정(2021), 「북한이탈여성의 학습생애사를 통해 본 학습과 삶의 관계」, 『통일인문학』 88, pp.69~120.
- 신경아(2011),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 남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 『산업노동연구』 17(2), pp.239~276.
- 안성식 · 양준영(2022), 『탈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체계 개선 및 실행방안 연구』, 남북하나재단 연구총서.
- 양영자(2013),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 :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5(3), pp.79~106.
- \_\_\_\_\_ (2014),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의 이주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6, pp.83~112.
- 엄철현 · 김다혜 · 성창수(2024), 「ADDIE 모형을 적용한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벤처창업연구』 19(6), pp.129~146.
- 유은주(2010), 「'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 여성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0(1), pp.199~245.
- 윤보성 · 김영지 · 이재범(2019), 「북한이탈주민의 네트워크 신뢰와 흡수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4), pp.50~75.
- 이승엽 · 김동주 · 이영광(2022), 「한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 '모살이」, 『교육문화연구』 28(6), pp.469~491.
- 이우태 · 조정아 · 이규창 · 이지순 · 최규빈 · 김정원 · 장인숙 · 박환보 · 최종학(202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정(2020), 「탈북대학생의 한국 사회와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생애사연구 - 교육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40(4), pp.305~331.
- 이재경 · 윤택림 · 이나영(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 구술사 연구방법』, 흥천 : 아르케.
- 이정은(2024),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생애노동이력을 통해 본 일과 가족 : 1950-70년대 식모경험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41, pp.115~151.
- 이준호 · 조봉현 · 이정희 · 이수룡(2017), 「북한이탈주민의 청년 창업과정 사례와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 39(3), pp.175~190.
- 이종구 외(2005),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한울.
- 이종구 외(2006),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
- 이지연(2018), 「탈북 여성의 어머니되기와 소속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34(4), pp.139~172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청년 세대의 교육 경험과 유목적 정체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13(3), pp.171~203.
- 이효선(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F.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pp.49~84.
- 이효선 · 김혜진(2014), 「생애사 연구를 통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삶의 재구성 : 파독간호사 단일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30(1), pp.253~288.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pp.120~148.
- \_\_\_\_\_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1), pp.1~45.
- 장지연 · 신동균 · 신경아 · 이혜정(2009), 『중 · 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주은선(2020), 「미국 실리콘밸리 한인이주노인의 빈곤-노동생애사와 세대간 관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1), pp.67~95.

◆ 執筆陣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승렬(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이지연(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적 소수자의 고용과 노동(Ⅱ):  
북한이탈주민

- |            |  |
|------------|--|
| ▪ 발행연월일    | 2025년 12월 26일 인쇄<br>2025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정가 7,000원

ISBN 979-11-260-0823-0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823-0